

기본연구보고서

한중일 아세안 관광협력에 관한 연구

한국관광연구원

목 차

요 약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연구배경 /

2. 연구목적 /

제2절 연구 범위와 방법

1. 연구 범위와 수행방법 /

2. 연구수행과정 /

제3절 연구의 구성

제2장 ASEAN의 개요 및 대 한국 관계

제1절 ASEAN의 연혁

1. ASEAN의 성립과 발전 /

2. ASEAN의 구성 /

3. ASEAN의 주요기구 /

제2절 한국과 ASEAN의 관계

1. 한국과 ASEAN의 대화 /

2. 한국과 ASEAN의 협력 현황 /

제3장 한·중·일+ASEAN 관광교류 및 관광협력 현황

제1절 한·중·일+ASEAN 관광교류 현황

제2절 한·중·일+ASEAN 관광협력 현황

1. ASEAN 국가들의 관광협력 현황 /

2. 일본과 ASEAN의 관광협력 현황 /

3. 한국과 ASEAN의 관광협력 현황 /

4. 시사점 /

제4장 국제기구별 관광협력 사례 및 시사점

제1절

제2절

제3절 시사점

제5장 한·중·일+ASEAN 관광부문 민간협력의 필요성

제1절 한·중·일+ASEAN 관광부문 민간협력의 필요성

제2절 한·중·일+ASEAN 관광부문 민간협회의 구성의 필요성

제6장 한·중·일+ASEAN 관광부문 민간협회의 기능 및 역할

제1절 한·중·일+ASEAN 관광부문 민간협회의 기능 및 역할

제2절 한·중·일+ASEAN 관광부문 민간협회의 구성 및 운영 방안

제3절 한·중·일+ASEAN 관광부문 민간협회에서 한국의 역할

제7장 결론 및 제언

<표차례>

<표 2- 1> ASEAN의 회원국가와 가입년도	
<표 2- 2> ASEAN의 대화상대국과 역외협업체제 수립년도	
<표 2- 3> 중·일, 아세안지역 내국인 출국 현황	
<표 2- 4> 내국인 순위별 출국 현황	
<표 2- 5> 중·일, 아세안 외국인 입국 현황	
<표 2- 6> 외국인 순위별 방한 현황	
<표 2- 7> 1993년 ASEAN 회원국가의 경제규모	

[그림차례]

[그림 1- 1] 연구수행과정	
[그림 2- 1] 내국인 중·일, 아세안 지역 출국현황	
[그림 2- 2] 일·중, 아세안 외국인 방한 현황	

요 약

1. 연구의 배경

- 10+3의 정상회의로 약칭되는 “한·중·일+아세안” 회의는 이 지역이 21세기에 세계 무역과 경제성장을 선도하는 역동적 경제권으로 재도약하기 위한 협력강화를 결의하는 회의로 발돋움하고 있음.
- 1999년 11월 28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된 한·중·일+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한국이 제안하여 공동선언문으로 채택된 정보통신분야, 문화·관광산업, 금융분야 등 10 정도의 업종별 민간협의회 구성은 향후 동아시아 국가간 협력체제 강화에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음.
- 특히, 동아시아 국가간 관광분야의 협력체제 구축은 역내 공동번영을 위하여 정부간의 협력보다는 관광상품의 공동개발, 관광관련종사자의 상호교환 교육 프로그램 개발, 항공사간의 업무교류 증진 등 민간부문의 협력이 더욱 필요한 부문으로 부각되고 있다.
- 한국이 향후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국제관광협력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중·일+아세안 관광부문 민간협의회 구성·운영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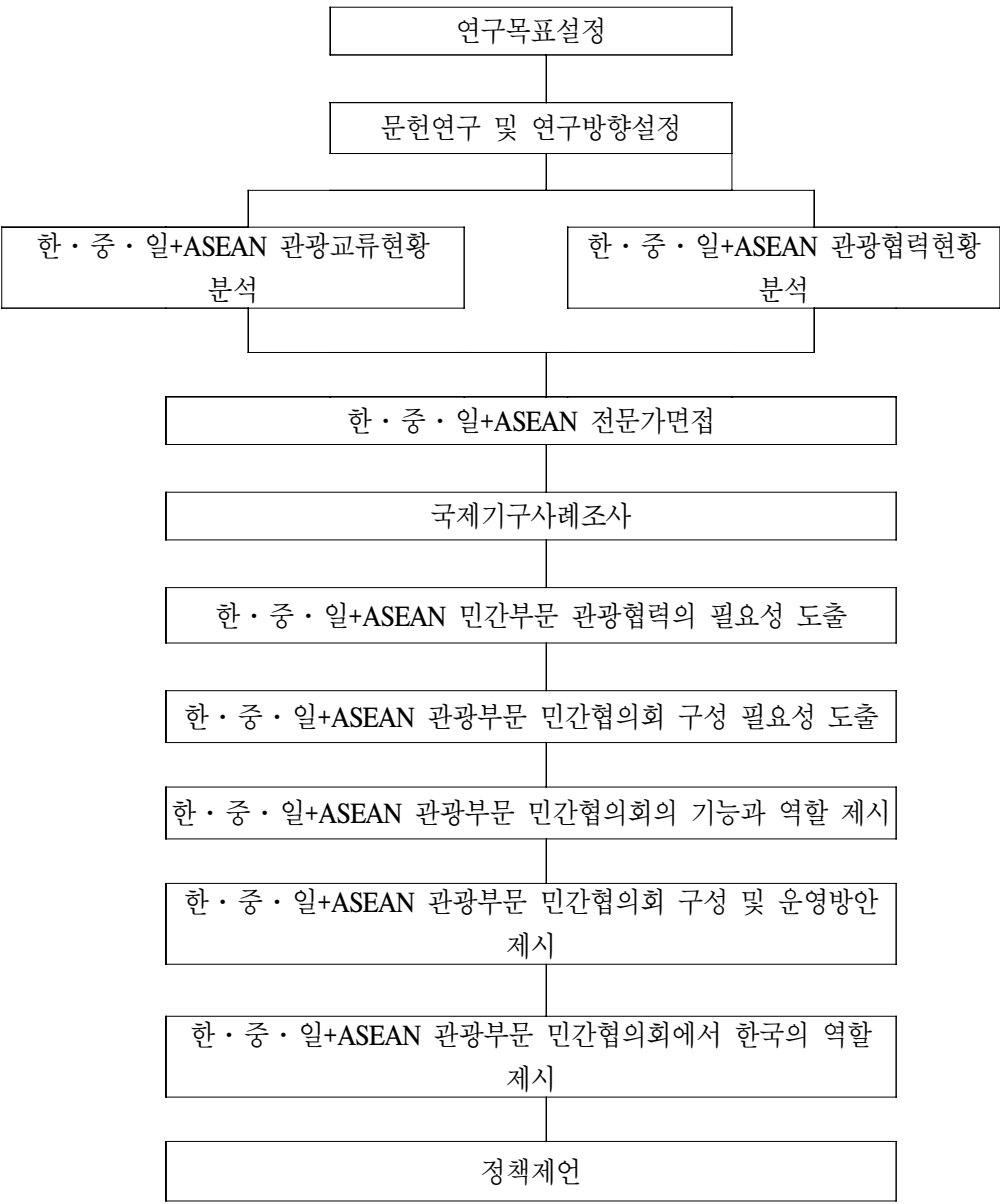
2. 연구목적

- 한·중·일+아세안 관광부문 민간협력 방안의 수립과 관광부문 민간협의회 기능 및 운영의 효율화 방안을 수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3. 연구의 범위

- 시간적 범위 : 2000년 3월-11월 (9개월)
- 공간적 범위 : 한국, 중국, 일본과 아세안 10개국
- 내용적 범위 : 한·중·일+아세안 관광 부문 민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방안

4. 연구수행과정



[그림] 연구수행과정

5. 아세안의 대외 관계

가. 아세안의 연혁

1) 아세안의 설립추진 배경

- 2차대전후 동남아시아 각국은 독립 후 또는 독립운동의 과정에서 민족 내부의 통합과 대외적인 안보위협 요인이라는 양대 과제에 직면하게 되었음.
- 또한 중국의 공산화, 인도지나에서의 공산주의 세력확산, 한국전쟁, 싱가포르의 자경화 우려 등 불안정한 지역정세에 직면하였으며, 세계적인 냉전 체제가 동남아시아 지역에 투영되면서 미·소 양 진영의 세력 각축장화의 우려가 대두되고 있었음.
- 60년대 초 미·소간의 평화공존 등 양대국간의 협조 분위기, 비동맹운동, UNCTAD 결성 움직임 등 신생 개도국간의 협력에 관한 국제적인 관심 고조 등의 지역 협력기구 설립에 관한 논의의 촉진 역할을 하였음.

2) 아세안의 성립과 발전

- 성립 경위
 - 60년대 중반 동아시아지역 국제정세의 급변(배경)
 - 아세안 선언
- 아세안 성격
 - 아세안은 ASA와 MAPHILINDO(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연합)의 정신을 결합하는 지역연합체로서, 공산주의 세력으로부터 동남아 안전수호 개념과 비동맹 정신을 동시 포용하고, 외국군 주둔 문제는 “일시적”이며 “관계국의 동의조건”으로 인정, 절충하는 방식을 취하였음.
 - 아세안은 실질적인 협력체제라기보다는 느슨한 선언적인 성격으로 출발했으나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결속력이 강한 지역협력 기구적 성격으로 발전하였음.
 - 1970년대 중반이후에는 역외국가와의 교섭에 있어 공동대응 등 집단적 협력 체제를 수립하게 되었음.
- 아세안의 발전과정
 - 비정치분야 중심의 협력 모색기 (1967-1971)
 - 정치분야의 협력을 포함하는 기능확대 모색기 (1971-1975)

- 정치·경제공동체로서의 기반 구축 (1971-1975)
- 지역공동체의 발전(1992년 이후)

3) 아세안의 구성

○ 아세안 회원국

[표] 아세안의 회원국가와 가입 년도

회원국	가입년도
인도네시아	1967
말레이시아	1967
필리핀	1967
싱가포르	1967
태국	1967
브루나이	1984
베트남	1995
라오스	1997
미얀마	1997
캄보디아	1998

○ 아세안의 역외 협의체제

[표] 아세안의 대화상대국과 역외협의체제 수립 년도

대화상대국(대화조정국)	협의체제 수립 년도
호주(인도네시아)	1974
뉴질랜드(브루나이)	1975
일본(베트남)	1977
미국(말레이시아)	1977
캐나다(필리핀)	1977
EU(태국)	1980
한국(싱가포르)	1991
인도	1995
중국	1996
러시아	1996

4) 아세안의 주요기구

- 정상회담(Meeting of the ASEAN Heads of Government)
- 외무장관회담(ASEAN Ministerial Meeting: AMM)
- 경제장관회담(Meeting of the ASEAN Economic Ministers: AEM)

- 상임위원회(ASEAN Standing Committee: ASC)
- 아세안 사무국(ASEAN Secretariat)
- 기타 회의

나. 아세안의 경제협력

1) 아세안 경제 개요

- 아세안 국가들은 세계에서 가장 급속한 성장을 하고 있는 지역으로 주목을 받고 있으며, 성장잠재력이 가장 높은 지역 중 하나로 꼽히고 있음.
- 1990년대 이후 이 지역의 정치·경제적 안정, 시장개발 확대, 풍부한 천연자원과 양질의 노동력, 그리고 외국자본 투자유치정책과 공동유효특혜 관세(CEPT: Common Effective Preferential Tariff)의 발효에 따라 투자환경이 크게 개선되고 있다는 점이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음.
- 아직 미개발된 풍부한 천연자원과 4억 8,600만(1996년 현재)의 거대한 인구규모를 보유하고 있는 아세안은 싱가포르를 제외한 회원국들이 1980년대 중반 이후 경제적으로 노동집약적 산업을 중심으로 공업화 정책을 추진하여 성공함으로써 비약적인 경제발전의 기틀을 마련하였음.
- 특히 아세안의 1993년에 아세안 자유무역지대 (AFTA: ASEAN Free Trade Area)를 결성함으로써 국제적인 교섭력이 한층 강화되기 시작하였고, 역내 무역의 활성화와 공동산업 프로젝트 등을 통해 산업경쟁력 또한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세계시장에서 차지하는 지분이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2) 한·아세안 경제 협력

- 교역
 - 한국의 대 아세안 교역은 1990년 101억 달러에서 1997년 329억 달러로 증가하는 등 매년 20% 내외의 성장을 하고 있으며, 1991년 이후부터 계속 무역흑자를 기록하였음 (대 아세안 무역흑자: 1991년 10억 달러 -> 1994년 46억 달러 -> 1996년 82억 달러 -> 1997년 78억 달러 -> 1999년 55억 달러)
- 투자
 - 1997년 말 현재까지 베트남을 포함한 아세안 9개국에 약 50.9억 달러를 투자하였으

며, 이로써 아세안은 미국 및 중국에 이어 우리의 제3위 투자대상으로 부상하였음(전체 투자의 17.2% 처자).

○ 건설

- 1997년 경우 44억 달러를 수주하여 한국의 전세계 건설 수주 중 약 31.4%를 차지함으로써 아세안의 제 1위 건설진출 지역이 되었으며, 1965-1997년간 동남아시아지역 건설 수주 누계는 286억 달러로 파악되었음.

○ 대 아세안 경험 제공

- 1987-1996년간 20개 사업에 총 304.6백만 달러를 아세안측에 유상원조로 지원하였음.

- 1996년 말 현재까지 전체 누계 3,021만 달러를 아세안측에 무상원조로 지원하였음.

3) 일·아세안 경제 협력

○ 협력자금 지원현황을 보면 기금설치 부분에서 아세안 문화기금(25백만 달러), 일·아세안 교환 프로그램(매년 약 100만 달러), 아세안 민간분야에 지원되는 산업협력기금인 아세안-일본 개발기금(20억 달러), 학술기금(10백만 달러) 등이 있으며, 아세안-일본 우호사업을 위해 87년이래 매년 100만 달러를 제공하는 등 협력자금을 매년 지원하고 있음.

○ 일본과 아세안의 무역규모는 1990년에 91,013억 엔으로 일본 전체 무역규모의 12.1%를 차지하였으며, 1998년에는 120,740억 엔으로 일본 전체 무역규모의 13.8%를 차지하였음.

○ 일본의 대 아세안 직접 투자규모는 1951-1998년간 총 13,685건 70,706억 엔으로 이 기간 일본의 전세계 총 직접 투자액의 약 10.3%를 차지하고 있음. 년도별 직접 투자 규모를 보면 1990년에 898건 4,082억 엔, 1996년에 667건 7,190억 엔, 1997년에 611건 9,608억 엔, 그리고 281건 5,156억 엔이 아세안 지역에 직접 투자되었음.

4) 중·아세안 경제 협력

○ 아세안은 1996년에 8.78십억 달러규모의 재화와 용역을 중국에 수출하였으며 이는 1993년 수출규모의 102.5%가 증가한 것임.

○ 중국은 일본, 미국, 홍콩, 독일, 한국, 그리고 대만 다음으로 아세안의 일본 번째 큰 시장으로 파악되고 있음.

○ 중국의 대 아세안 수출 규모는 1996년에 7.09십억 달러로 1995년에 비하여 14.4%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6. 한·중·일+아세안 관광 교류 및 협력

가. 한·중·일+아세안 관광 현황 및 전망

1) 한국의 대 중국, 일본, 아세안 관광교류현황

○ 한국인의 아세안 국가 방문자수는 해외여행 자유화정책과 함께 1996년까지 급속히 증가해 왔으나 1997년부터 외환위기의 여파로 다소감소 하였고, 중국, 일본으로의 1999년 방문자 현황을 보면 일본 약 105만명, 중국 약 82만명으로 경제위기를 맞아 급속히 감소하였던 방문자수가 1999년부터 다시 증가추세이며 경제회복 심리와 함께 그 동안 누적된 수요로 해외여행객은 계속 증가될 전망이다.

○ 한국을 방문하는 전체 외래방문객 중 아세안국가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1990년 6.8%에서 꾸준히 상승하여 1999년에는 10%를 넘어서고 있다 이와 더불어 1999년 한국을 방문한 일본의 방문자수가 2,184,121명으로 전체 방문자수 4,659,785명의 47%를 차지하며 중국 역시 전체의 7%를 차지하고 있음.

2) 일본의 대 아세안 관광교류현황

○ 1999년 라오스를 제외한 아세안 지역으로부터 일본을 방문한 외래객 수는 325,312명으로 전체 일본 인바운드 시장의 약 7.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1998년 약 3백7만명의 일본인이 아세안지역을 방문하였으며, 이것은 전체 일본 아웃바운드 시장의 약 12.3%를 차지하는 규모임.

3) 중국의 대 아세안 관광교류현황

○ 1999년 아세안 지역으로부터 중국을 방문한 외래객 수는 1,507,312명으로 전체 중국 인바운드 시장의 약 17.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한편 1999년 1,883,633명의 중국인의 브루나이, 인도네시아와 라오스를 제외한 아세안지역을 방문하였으며, 이것은 전체 중국 아웃바운드 시장의 약 24%를 차지하는 규모임.

나. 한·중·일+아세안 관광협력

1) 아세안 관광협력의 보편성과 특수성

- 관광분야에서 아세안 협력은 1976년에 아세안 무역·관광 위원회 산하에 관광 소위원회(Sub-Committee on Tourism: SCOT)의 구성을 통해 형태가 갖추어졌음.
- 지금까지 아세안 관광협력의 가장 두드러진 업적은 1992년 아세안 방문의 해 캠페인(VAY '92)와 1981년 이래로 매년 개최해온 아세안 관광 포럼 그리고 협력의 중심으로서 1988년 설립된 『아세안 정보 센터』를 들 수 있음.
- 아세안 회원국가들은 관광이 그들의 경제 성장 및 부의 증대와 사회적, 문화적, 역사적 유산 및 아세안의 이미지를 증대하는 데에 전략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음.

2) 관광협력의 목적

- 아세안 관광협력의 목적은 첫째, 세계적 수준의 관광편의시설과 매력물을 가진 단일 또는 공동적 관광목적지로서 아세안을 발전·진흥시키며 둘째, 아세안 내에서의 여행의 자유와 관광서비스면에서 자유로운 무역과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공분야와 개인분야 모두를 포함한 회원국 사이의 관광협력을 증진시키며, 셋째, 관광분야의 주요쟁점과 개발에 대한 토론의 장을 제공하는 데 있음.

3) 관광협력의 범위

- 관광에 있어서 아세안 협력은 아세안 관광산업의 지속적, 정기적 실행 가능성을 성취하기 위하여 투자정책, 관광개발계획, 인적자원개발, 환경·문화 보호와 같은 분야에서 강화될 것으로 보고있음.
- 아세안 관광에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일반적인 실행으로 첫째, 정보와 경험이 교환, 둘째 관광정책과 프로그램의 조정 및 조화 셋째, 마케팅, 훈련, 리서치, 정보보급 넷째, 아세안 역내 여행의 간편화 다섯째, 관광기반시설과 이외의 관련된 여행, 관광시설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관광 인센티브 장려 여섯째, 개인분야의 참여 장려 및 정부와 개인의 협력 강화 일곱째, 아세안으로의 관광을 촉진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아세안 토론 파트너들과 다른 신흥시장들과의 밀접한 상호협력 여덟째, 공통적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에서 제기되고 있는 국제적, 지역적 관광쟁점에 대한 공동접근 등을 제시하고 있음.

4) 전략과 행동

- 첫째, 아세안지역을 다양한 매력과 세계적 수준의 기준과 시설을 가진 유일한 관광 목적지로 마케팅하기 위해서 주제가 있는 여행 패키지와 매력물을 제공하는 유일한 목적지로서 아세안을 촉진하고, 아세안 와이드 이벤트를 개최하며, 공공과 개인 분야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아세안 관광 기금(fund)을 설립하고,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아세안 규칙서를 제정하며, 안전을 보장함.
- 둘째, 보다 경쟁적인 상황하에 관광투자를 장려하기 위해서 아세안 관광 투자 가이드를 개발하고, 인적자원의 자유로운 이동을 쉽게 함.
- 셋째, 관광 인적자원의 평가단(critical pool)을 개발하기 위해서 HRD(human resource development) 활동에 있어서 협력을 강화하고, 훈련 요구 분석을 수행하며, 교육과 훈련에 관련된 관광저널인 SPARK를 발행함.
- 넷째, 환경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관광을 장려하며, 마지막으로 경제가 없는 아세안 역내 관광이 융이하도록 조장함.

5) 협력의 한계

- 국가 관광협력은 주요 관광협력분야별 협력내용에서 보듯이 국제협력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커다란 의의를 지니는 것으로 보임. 그러나 관광의 특성을 반영한 보다 실천적이고 구체적이며 상호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실익을 가져다주는 면에서 상당한 제약을 지님.

다. 아세안 국가간의 관광협력 사례

- 아세안국가들의 관광협력은 1978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정상회담이후 점차 활발히 사업을 진행시켜왔음.
- 아세안 관광산업 협력은 공공기관과 민간차원에서 이루어져 왔음. 아세안 관광포럼(ASEAN Tourism Forum : AFT)은 민간 관광업체들에 의해 유지되어 왔는데, 예를 들어 1999년 1월 싱가포르 AFT회의는 싱가포르의 호텔협회와 여행협회가 주관이 되어 개최하였음.
- 아세안 국가의 NTO들이 주관하는 활동들에는 단일 관광목적지로서의 아세안지역

마케팅과 환경친화적 관광산업 추진, 관광산업에의 투자유치 및 아세안 관광투자 안내 책자 발간, 관광산업인력 개발 및 아세안 국가간 관광협력사업 계획 등이 있음.

○ 최근 아세안 관광협력은 2002년 ‘밀레니엄 아세안 방문’의 해에 초점을 두고 공동 사업구상을 하고 있음.

1) 아세안 국가 관광장관 회의

○ 1998년 1월 10일에 필리핀에서 개최된 아세안 국가 관광장관회의에서 아세안 관광 장관들은 아세안 회원국의 경제성장 및 고용창출에 있어 관광사업에 차지하는 역할을 재확인하고 회원국간의 지속적인 관광협력을 결의하였음.

○ 1999년 1월 28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제2차 아세안 국가 관광장관 회의에서는 하 노이 행동계획을 발표하여 관광부문 우선 사업의 이행계획을 결의하였음.

2) 일·아세안 관광협력 사례

○ 일본은 다케오 후쿠다 전 수상의 발의로 제안되었던 아세안 센터를 1981년 5월 25일 아세안측과 “무역, 투자, 관광에 대한 아세안 진흥센터 건립에 대한 협정”을 맺음으로써 설립하게 되었음.

○ 아세안 센터는 무역, 투자, 관광과 관련하여 아세안 사무국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아세안 센터의 설립목적은 아세안의 대 일본 수출 증진, 일본의 대 아세안 투자 증진, 그리고 일본의 대 아세안 관광 활성화 등임.

3) 중·아세안 관광협력 사례

○ 중국과 아세안의 관광협력의 역사는 그리 길지 않으며 매우 제한적인 관광협력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대표적인 중국-아세안지역의 관광협력 사례로 꼽히고 있는 것은 중국과 싱가포르간의 관광협력으로 알려져 있음.

4) 한·아세안 관광협력

○ 한·아세안 협력사업은 특별협력기금의 지원 아래 각 분야별로 추진되고 있음. 우리 나라는 아세안과 대화관계가 구축된 후 1999년 3월 현재까지 50건에 이르는 협력사업을 추진해왔는데, 그 중 관광관련 사업은 7건에 불과하며 1995년 이후부터는 전무한 상태임. 금액으로는 한·아세안 협력사업에 소요된 총 6,405,395달러 중 1,742,830달러

가 관광관련 협력사업에 지출되었음.

라. 한·중·일+아세안 국가간의 관광협력 문제점

1) 사업 시행의 문제점

○ 관광협력 사업 제안시 고려하여야 할 점이 시행이라는 실천적인 부문임.

2) 관광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

○ 한·중·일+아세안 지역이 21세기 세계 관광의 주요 목적지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관광산업의 지속적인 진흥을 위하여서는 협력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할 필요가 있으며, 목적이 뚜렷한 협력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

3) 일방적 관계로의 협력 진행

○ 기존의 한·중·일+아세안의 관광협력 사업은 앞서 검토하였듯이 아세안측에 일방적인 수혜의 형태로 진행되어왔음을 알 수 있음.

7. 민간부문 협력 사례 분석

가. 민간부문 협력 필요성

○ 21세기 세계 관광 목적지로서 차지하는 동아시아·태평양의 비중이 점차 증대되고, 역내관광의 상호의존성도 급속히 높아감에 따라 역내국가들간 협력강화의 필요성이 중요시되고 있음.

○ 특히, 한·중·일+아세안 지역을 방문하는 역내, 역외 관광객들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한·중·일+아세안 지역이 21세기 주요 세계 관광목적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역내 관광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및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관광협력활동이 요구되고 있음.

○ 한·중·일+아세안의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서는 관광산업 주체인 민간관광업체를 중심으로 한 관광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음.

○ 한·중·일+아세안 지역내의 관광부문 민간 협력, 그리고 민간부문과 정부 또는 공공부문의 협력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 이러한 협력체계의 구축을 통하여 관광상품의 공동개발, 관광관련종사자의 상호교환 교육 프로그램 개발, 항공사간의 업무교류 증진 등 구체적인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민간협의회를 통한 한·중·일+아세안 지역의 개개 정부에 대한 기술적·정책적 지원을 더욱 활성화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나. 사례분석

1) 아시아태평양관광협회(PATA)

○ 아시아태평양관광협회(Pacific Asia Travel Association: PATA)는 1951년에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관광인들의 제창에 의해 설립된 아시아·태평양지역 관광산업발전을 도모하는 이 지역의 여행·관광에 대한 대표적 민간활동 국제기구임.

○ PATA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고유한 자연·사회·문화적 환경의 보존과 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한 지원 및 관광교류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그리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관광가치와 관광질을 향상시키고 촉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을 기구의 목적으로 삼고 있음.

○ PATA는 협회를 기능별로 분리하여 경영관리 기능(경영본부)은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 사업집행기능(운영본부)은 1998년 10월 1일자로 태국의 방콕으로 이전하였음. 운영본부 산하에는 PATA 전략 정보센터 및 조사 담당 기능, 이벤트 담당 기능, 그리고 홍보담당 기능이 있으며 경영본부 산하에는 행정·재무 담당 기능, 그리고 이사회 및 스폰서 담당 기능이 설치되어 있음. 전체 4개의 지역본부가 설치되어 있음.

2) 세계여행관광위원회(WTTC)

○ 1990년 4월 세계여행관광위원회(World Tourism Council: WTTC)가 설립되었음. WTTC는 범 지구 여행·관광산업 분야 지도자들로 구성되어있음. WTTC는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산업으로 인식되고 있는 관광산업의 소득 및 고용 등 경제적인 영향을 최대한 실현하기 위하여 정부부문과 함께 노력하는 것을 기본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WTTC의 정책들은 15 집행위원의 멤버들, WTTC 회장과 본부 스태프, 중남미·아시아태평양·동유럽·유럽 등의 지역 대표들에 의해서 계획되고 집행되고 있음.

○ WTTC 밀레니엄 비전

- 경제 및 고용을 위한 여행·관광산업의 전략적 우선 순위
- 개방·경쟁시장으로의 이동
- 지속가능한 개발 추구
- 성장장애요인 제거

○ WTTC의 전략적 우선 순위

- 여행·관광의 미래에 대한 비전제시
- 관광산업의 전략적 경제적 중요성에 대한 논의 및 측정
- 일자리 제공 및 career opportunities 제공으로서의 관광산업의 긍정적 이미지 증진
- 자유 시장, 개방 시장, 개방 항로 등의 촉진 및 성장장애요인 제거
- 기반시설 개발과 소비자 수요의 결합
- 기술적 향상을 위한 투자 및 자본자원의 접근 개발
- 자연·사회·문화 환경에 대한 책임 증진

3) 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PECC)

○ PECC는 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정부 요청에 의해서 1980년 조직되었음

○ PECC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협력을 위한 전략 개발을 위하여 정부기관, 연구기관, 그리고 비즈니스 분야의 자원과 지식을 결합한 조직체임.

○ PECC은 APEC에 대한 민간부문의 공인된 옵저버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PECC은 태평양지역의 경제협력증진을 위해 관계, 학계, 업계로 구성된 민간 경제협력체로 23개 회원국(프랑스는 현재 준 회원국)이 있으며 산하에 14개 분과위원회를 두고 있음.

○ PECC은 다음과 같은 설립목적과 운영원칙을 두고 있음

- 태평양지역의 경제성장 및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협력 및 정책협조를 논의함.
- 동반자의식, 공평성, 상호존중 및 협력의 정신 하에 발전적, 진취적, 평화적인 태평양 지역의 기초를 다지기 위한 교역, 합작투자 등 역내국가간 유대를 강화함.
- 경제, 환경, 사회, 과학, 기술, 경영 등 공동 관심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협력을 함.
- 훈련 및 연구지원을 통한 인적자원개발을 함
- 자연자원(농업, 수산업, 광물 및 에너지)의 교역 및 개발, 산업구조의 조정, 자유로운 교역 및 투자의 확대, 수송 및 통신능력의 개선을 함.

- 여타 국제기구·단체와의 협력관계 및 연대를 통한 범세계적 성장 및 교역을 증진함.

다. 시사점

1) 정부조직과의 긴밀한 협력관계

○ PATA, WTTC, 그리고 PECC 등의 사례분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민간부문 협력체일지라도 정부 또는 정부기구들과의 협력관계를 긴밀히 유지하고 있다는 것임.

2) 기구구성의 복잡성

○ PATA, WTTC, 그리고 PECC 등은 외형적 성격상 민간협력체의 성격을 띄고 있으나 그 기구 구성을 살펴보면 WTTC를 제외하고는 민간부문만으로 구성되었다고 보기는 힘들.

3) 지부의 설치

○ PATA, WTTC, 그리고 PECC 등은 각각 본부의 설치와 함께 세계 각지에 지부를 설치함으로써 활동의 영역을 확장함과 아울러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사업을 전개하고 있음.

4) 회원들의 활발한 활동

○ PATA, WTTC, 그리고 PECC 등은 각각의 기구를 구성하고 있는 회원들의 활발한 활동이 기구 운영의 토대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8. 한·중·일+아세안 관광협력 방안

가. 기본방향

1) 협력공감대의 형성

○ 성공적인 협력사업 수행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협력 필요성에 대한 당사자 간의 인식이지만, 아직 역내 국가 및 기업간 관광분야 교류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의 형성은 미약함.

2) 상호 호혜적 협력 사업의 발굴

○ 협력의 지속성은 협력의 내용이 상호 보완적 일 때에만 보장 될 수 있기 때문에 역내 국가간 상호 호혜적인 협력사업의 발굴을 위한 보다 큰 투자가 요망됨.

3) 민간주도의 협력추진

○ 향후 한·중·일+아세안의 협력은 과거 정부 주도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주도 형태로 전환되어야 할 것임. 민간주도의 협력은 기존 정부 중심 협력의 한계로 지적되어온 협력사업의 경제성과 실천성 결여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협력의 영역 확대 및 지속성 확대에 크게 기여 할 것임.

나. 한·중·일+아세안 관광부문 민간협의회

1) 관광부문 민간협의회 필요성

○ 역내 관광교류 및 역내로의 관광 촉진을 위하여 민간관광협의회를 설립하여 회원국의 관광기업간 교류 및 협력 촉진을 통한 역내 관광 산업 발전에 기여하며 관광기업의 경쟁력 향상 및 지속적 발전을 도모하여야 할 것임.

○ 민간관광협력회의를 통하여 역내 관광환경 개선을 통한 관광의 질 향상과 상호 관광자원의 개발 및 보호, 관광산업의 연구·개발, 관광요원의 양성과 훈련을 통해 관광을 촉진시키며 관광사업발전을 위해 필요한 부대시설 구축을 촉진함은 관광협력 및 활성화의 기반이 될 수 있음.

2) 한·중·일+아세안 관광부문 민간협의회 기능 및 과제

○ 한·중·일+아세안 민간협의회 기능

- 한·중·일+아세안 관광부문 민간협의회는 최우선적으로 한·중·일+아세안의 관광부문 자문기구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며, 다른 지역기구 및 국제기구와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여야 하며, 관광협력을 통한 소속 회원들의 발전 및 회원국의 번영 그리고 지역 및 세계의 공동 번영을 위하여 역할을 담당하는 기구의 기능적 성격을 설정하여야 할 것임.

○ 한·중·일+아세안 관광부문 민간협회의의 과제

- 한·중·일+아세안 지역 역내 기업간 제휴 및 협력 사업을 발굴, 추진하여 역내 관광산업 발전의 시너지효과를 모색
- 한·중·일+아세안 지역의 관광관련 정보교류 및 조사연구 사업을 시행하여 전체 지역의 발전을 도모
- 한·중·일+아세안 지역 관광 종사원들을 위한 교육연수 사업을 개발·시행하여 관광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
- 한·중·일+아세안 지역 관광기업인간 교류를 촉진할 수 있는 사업을 개발·시행하여 회원 및 회원국의 관광 또는 경제발전 및 번영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지역의 관광산업 발전 및 경제적 번영을 추구

3) 한·중·일+아세안 관광부문 민간협의회의 구성방안

○ 기구명칭(안)

- 한·중·일+아세안 관광부문 민간협의회의 명칭은 『아시아 민간관광협의회』(A남 Tourism Business Council: ATBC)로 제안되어짐.

○ 설립목적

- 한·중·일+아세안의 관광부문 자문기구역할을 수행함.
- 한·중·일+아세안 지역기구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함.
- 소속 회원·회원국의 발전과 지역 및 세계의 공동 번영을 추구함.

○ 조직구성 및 임무

- 한·중·일+아세안 관광부문 민간협의회의 기능 및 역할을 최대한 효과적·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협회의 총괄적인 업무를 수행할 본부가 설치되어야 함.
- 본부에는 이사회, 운영위원회의를 설치하여야 하며 실무를 담당할 수 있는 사무국을 설치하여야 함.
- 각 회원국 및 대외 협력관계를 긴밀히 유지하는 업무를 담당할 부서, 협회의 행정 및 제무를 담당할 부서, 스폰서 및 행사를 담당할 부서, 그리고 위에서 제안된 과제별 담당 부서를 설치하여야 함.
- 한·중·일+아세안 관광부문 민간협의회의 본부를 지원하고 각 회원국의 필요 사항을 지원·집행할 수 있는 지부를 설치하여야 함.

○ 회원 구성

- ABG(Academic, Business, Government)를 회원구성의 원칙으로 삼아야 할 것임. 즉, 관

광관련 연구계(Academic), 민간업계(Business), 그리고 정부조직(Government) 등으로 구성되어야 함.

○ 재원

- 초기 운영자금은 회원국 정부의 출연금으로 조달
- 점진적으로 회비 징수를 통해 운영자금으로 활용

4) 국내 민간 협의회 구성 운영(안)

○ 기구명칭(안) : 『아시아민간관광협의회 한국지부』 (ATBC Korea Chapter)

○ 설립목적

- 한·중·일+아세안 관광협력강화
- 『아시아민간관광협의회』 활동 참여
- 한·중·일+아세안 지역 관광협력을 위한 국내지원체제 구축
- 한·중·일+아세안의 각종 활동 지원
- 국내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

○ 조직구성 : 이사회, 사무국, 회원 (AGB)

○ 주요 활동

- 기업간 제휴 및 협력사업
- 본부와의 협력활동
- 회원사 홍보 및 판촉활동
- 기업인간 교류 촉진

○ 재원: 초기 운영자금은 정부의 출연금으로 조달, 점진적으로 회비 징수를 통해 운영 자금으로 활용

다. 민간협력 제안사항

- 역내 관광산업 전체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공동조사
- 민간부문의 관광정보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
- 관광전문인력의 육성·교환 프로그램의 실시
- 청소년 관광단의 상호 교환 파견등 청소년 관광 활성화 방안
- 공동 관광홍보·마케팅협력

- 국제행사·이벤트의 공동참여·출전
- 문화·예술·체육 등 분야별 교류협력의 확대
-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 공동운영
- 역내 항공·해운 등 국제 운송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공동 노력

9. 결론

- 한·중·일+아세안 역내 관광부문 민간협의회 구성 및 민간협력의 활성화는 역내 관광산업의 중요성과 잠재력을 새롭게 평가하고 각 역내 국가간의 비교우위를 가지는 분야를 부각시키면서 역내 관광교류의 증대, 역내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지식기반 경제에 부합하는 e-commerce의 활성화 및 효율적인 관광정보 교환 등의 성과를 가져올 것이며, 한·중·일+아세안 지역의 새로운 관광협력모델을 창출하는 계기가 될 것임.
- 역내 관광교류 및 역내로의 관광축진을 위하여 민간관광협의회를 설립하여 회원국의 관광기업간 교류 및 협력 축진을 통한 역내 관광 산업 발전에 기여하며 관광기업의 경쟁력 향상 및 지속적 발전을 도모하여야 할 것임.
- 민간관광협력회의를 통하여 역내 관광환경 개선을 통한 관광의 질 향상과 상호 관광자원의 개발 및 보호, 관광산업의 연구·개발, 관광요원의 양성과 훈련을 통해 관광을 촉진시키며 관광사업발전을 위해 필요한 부대시설 구축을 촉진함은 관광협력 및 활성화의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임.
- 한·중·일+아세안 관광부문 민간협의회는 한·중·일+아세안의 관광부문 자문기구역할을 수행, 한·중·일+아세안 지역기구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하여 지역발전에 기여, 소속 회원·회원국의 발전과 지역 및 세계의 공동 번영 추구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여야 할 것이며, 세부 추진 목표로 역내 관광교류 축진을 통한 관광효과 증진, 회원국 관광기업간 교류 및 협력 축진을 통한 역내 관광산업발전 기여, 관광기업의 경쟁력 향상 및 지속적 발전 지원, 역내 고유한 자연, 사회 및 문화적 환경의 보존 등을 설정할 수 있음.
- 한·중·일+아세안 관광부문 민간협의회 설립을 위하여서는 제안되어진 추진일정을 참고로 하여 각 회원국의 적극적인 협조를 유도하여야 할 것임. 또한 한국은 Facilitator 국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중·일+아세안 관광부문 민간협의회 설립 추진일정과 함께 한국지부 설립일정을 함께 병행하여 실행하여야 할 것임. 이를 위하

여 국내 Task Force를 구성하여 한·중·일+아세안 관광부문 민간협의회 설립을 위한 계획·수정·조정·실행 등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관련 연구의 지속적인 실행 또한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임.

제 1 장 연구개요

제 1 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연구배경

동북아시아와 동남아시아를 포함한 동아시아가 21세기의 세계중심으로써 역할을 효과적·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정부간 협력뿐만 아니라 민간분야 차원에서의 경제협력, 자본과 기술의 교류와 같은 역내 교역이 활발히 진행되어야 하나, 이를 위한 지역 내 민간 협력구도를 구체화시키는 노력은 상대적으로 매우 미흡하였다.

다시 말하면, 지역간 관계가 협력적 패턴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각 국가간 협력체제가 공고히 구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국, 일본, 중국, 그리고 ASEAN 국가들은 지역협력을 위한 제 분야의 다양성 즉, 역사적 경험, 정치체제와 이념, 경제발전단계, 사회·문화적 측면 등에서의 다양성 때문에 역내 국가간 긴밀한 연관관계보다는 내부의 정치적 분열 및 외부세력의 침투와 지배에 의해 특정 지어질 뿐 효율적인 역내협력체제는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못했음이 사실이다. 그러나, 1996년 Asia Europe Meeting(ASEM)의 출범과 1997년부터 동아시아국가들을 강타한 경제위기는 본격적인 역내 국가들간의 협력의 필요성을 제기하게 되었고, 역내국가들간 경제협력을 바탕으로 한 지역주의를 촉진시키는 주요계기를 제공하였다.

이에 1997년 12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된 ASEAN 창설 30주년 기념 비공식 정상회의에서 말레이시아의 Mahathir 수상이 한국, 중국, 일본의 정상들을 초청한데서 비롯되어 1999년 11월28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한·중·일+ASEAN 정상회담이 개최되었고, 한국은 여기에서 동아시아 경제협력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실질적 협력의 장을 마련하고자 정보통신분야, 문화·관광산업, 금융분야 등 10개 정도의 업종별 민간협의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이를 공동선언문에 채택하게 되었다. 특히, 한국은 한·중·일+ASEAN 회의기간 중 가진 필리핀 경제 4단체 공동주최 오찬에서 관광분야의 꾸준한 협력을 재차 강조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관광상품의 공동개발,

관광관련종사자의 상호교환 교육 프로그램 개발, 항공사간의 업무교류 증진 등 민간부문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한·중·일+ASEAN 역내 관광부문 민간협회의 구성 및 민간협력의 활성화는 역내 관광교류의 증대, 역내 관광투자 기회의 증대, 관광정보 및 인적교류의 확대, 역내 국가의 관광매력도 증진, 역내 관광산업 활성화 및 다양한 정보 공유 등 한·중·일+ASEAN 지역의 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한·중·일+ASEAN 업종별 민간협회 구성 및 민간 관광협력활성화를 제안한 국가로서의 역할과 대외적 관계를 고려하였을 때 구체적인 이행사업으로 관광부문에서 한·중·일+ASEAN 민간협회 구성·운영방안을 제시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한·중·일+ASEAN 관광부문 민간협회 구성 및 운영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있다.

제 2 절 연구범위와 방법

1. 연구의 범위

가. 시간적 범위

- 과제수행기간: 2000년 3월-11월 (9개월)

나. 공간적 범위

- 한국, 중국, 일본과 ASEAN 10개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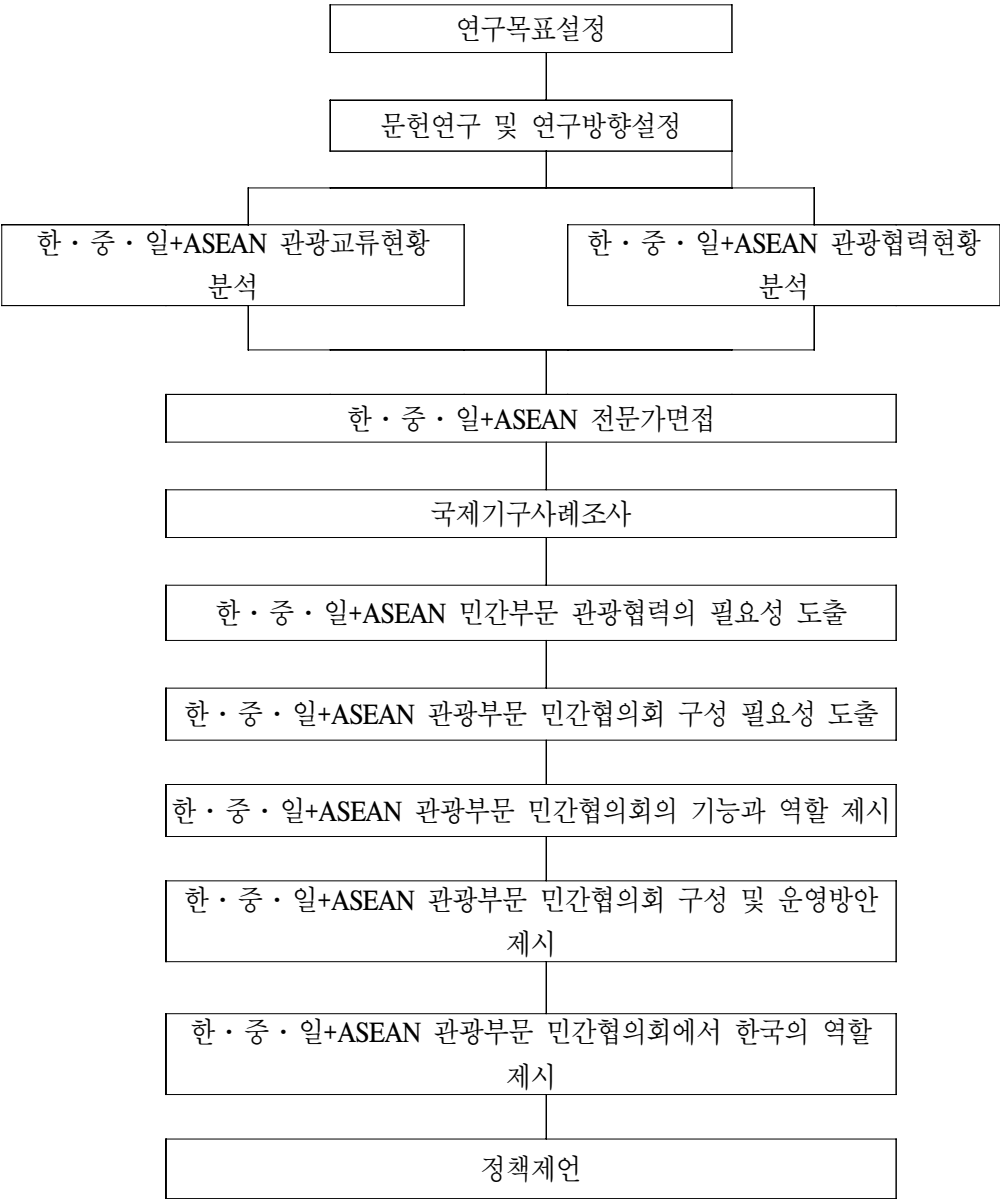
다. 내용적 범위

- 한·중·일+ASEAN 관광 부문 민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방안

2. 연구의 수행방법

- 국내외 문헌조사
 - 국내외 문헌조사를 위하여 ASEAN 및 ASEAN 각 회원국, 일본, 한국의 청와대, 외교통상부, 국제협력단,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관광공사 등에서 발간한 문헌과 이들이 운영하는 각종 인터넷 웹사이트의 정보를 분석하였다.
- 2차 자료분석 (Secondary Data Analysis)
 - 2차 자료분석을 위하여 세계관광기구(WTO)에서 제공하는 국가별, 지역별 관광현황 및 전망, 그리고 경향 등에 대한 자료와, 한국관광공사에서 제공하는 관광통계, World Bank Group에서 제공하는 사회·경제적인 자료, 외교통상부 등에서 제공하는 국가별 교역 및 투자 현황, 일본정부에서 제공하는 ASEAN 관련 각종 통계자료 등이 사용되었다.
- 국내·외 전문가 면접
 - 국내·외 전문가 면접은 2000년 5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한·중·일+ASEAN 실무대표자 회의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한국의 국제협력단, 한국관광공사, 그리고 대한상공회의소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국과 ASEAN의 일반 또는 관광부문 협력에 관한 사례 및 현황과 관광관련 민간협의회 구성 및 운영방안에 대한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3. 연구수행과정



[그림1-1] 연구수행과정

제 3 절 연구의 구성

본 연구는 7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론에 이어 제 2장에서는 ASEAN의 설립배경 및 발전과정, 조직구성 및 성격, 그리고 대외 관계 및 한국과의 관계 등을 기술하였으며, 제 3장에서는 한·중·일+ASEAN의 관광교류 현황 및 관광협력 현황 등을 분석하였다. 제 4장에서는 다른 국제기구의 관광협력사례를 조사·분석하였으며, 제 5장에서는 한·중·일+ASEAN 관광부문 민간협력의 필요성과 민간협의회구성의 필요성을 기술하였다. 제 6장에서는 한·중·일+ASEAN 관광부문 민간협의회 기능과 역할, 구성 및 운영방안, 그리고 한국의 역할 등을 제시하였으며, 제 7장은 결론 및 정책제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 2 장 ASEAN의 개요 및 대 한국 관계

제 1 절 ASEAN의 연혁

1. ASEAN의 성립과 발전

가. 성립 경위

1) 60년대 중반 동아시아지역 국제정세의 급변 (배경)

이 당시 동아시아 지역은 베트남 전쟁의 격화 및 인도지나에서의 공산주의 세력의 급속한 확대, 중국의 문화 대혁명 등 지역 안보환경 악화에 따른 공동대응의 필요성이 구체화되었으며, 싱가포르의 독립, 인도네시아 공산당의 쿠데타 음모 진압 후 수하르토 정권 성립에 따른 외교정책의 대전환 등 동남아지역 협력을 위한 여건이 성숙한 시기였다.

2) ASEAN 창립선언(방콕선언)

1966년 8월 제 3차 ASA(Association of Southeast Asia) 외무장관회의 시 ASA의 재편 필요성이 확인되었으며, 1967년 7월 말리크 인도네시아 외무장관이 태국을 방문, 태국 측과 ASEAN 창립선언 초안을 마련하였다. 이후 1967년 8월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등 5개국 외무장관회담을 개최, ASEAN 창립선언을 발표(방콕선언)하였다.

3) ASEAN 성격

ASEAN은 ASA와 MAPHILINDO(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연합)의 정신을 결합하는 지역연합체로서, 공산주의 세력으로부터 동남아 안전수호 개념과 비동맹 정신을 동시 포용하고, 외국군 주둔 문제는 "일시적"이며 "관계국의 동의조건"으로 인정, 절

충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ASEAN은 실질적인 협력체제라기보다는 느슨한 선언적인 성격으로 출발했으나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결속력이 강한 지역협력 기구적 성격으로 발전하였다. 이는 ASEAN회원국간 갈등과 대립요소를 성공적으로 해결, 내부결속 강화 등에 기인한 것이었다. 이러한 내부결속을 바탕으로 새로운 국제정세에 공동 대응능력이 배양되었으며, 내부결속과 대외적인 공동대응의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1970년대 중반이후에는 역외국가와의 교섭에 있어 공동대응 등 집단적 협력 체제를 수립하게 되었다.

나. ASEAN의 역사

1) 비정치분야 중심의 협력 모색기 (67-71)

이 시기는 첫째, 경제, 사회, 문화 등 비정치분야의 협력증대가 모색되는 시기였으며, 둘째, 회원국 내부의 갈등 표출과 이의 극복을 통한 내부 결속의 기초를 강화하는 시기였다. 셋째, 안보문제에 관해서는 회원국 각국의 다양한 입장을 감안 역내 국가간 직접적인 협력 논의는 자제하는 시기이기도 하였다.

2) 정치분야의 협력을 포함하는 기능확대 모색기 (71-75)

이 시기 ASEAN은 첫째, 안보문제를 포함한 정치적 지역협력 기구로의 발전, 역내의 실질적인 경제협력의 강화, 대외적인 공동대응 기능의 강화, 이에 따른 국제사회의 ASEAN에 대한 관심 증대 등 ASEAN의 도약기로 평가되고 있다. 둘째, 정치적 지역협력기구로의 발전하는 시기였다. 셋째, ASEAN의 실질적인 역내 경제협력 방향을 모색하는 시기였으며, 넷째, 대외적인 공동 대응능력이 강화되는 시기였다. 다섯째, ASEAN의 국제적인 지위가 향상되는 시기였다.

3) 정치, 경제공동체로서의 기반 구축 (75-91)

첫째, ASEAN의 안전보장과 경제발전 확보라는 2대 목표를 추구하는 지역협력 공동체로의 발전기반을 구축하는 시기였으며, 둘째, 공동체로서의 내부결속 강화를 통해 대외 공동 대응 능력의 획기적인 확대가 이루어진 시기였다. 셋째, ASEAN의 공동 안보

협력 개념을 전 동남아지역으로 확대하는 시기였으며, 넷째, 역내 경제협력의 구체적인 진전을 이루는 시기였다. 다섯째, 역외 국가와의 집단적 협조체제가 정착되는 시기였다.

4) 지역공동체로의 발전 (92년이후)

이시기는 ASEAN이 지역공동체로 발전하는 시기로 규정될 수 있으며, 몇 가지 주요한 회의 및 조직이 결성되는 시기이기도 하다. 첫째, ASEAN의 새로운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시기이다. 둘째, ASEAN 지역 안보포럼(ASEAN Regional Forum: ARF)이 이시기에 결성되었다. 셋째, 동남아 10개국 전부를 포함하는 ASEAN의 조기 실현의지를 표명함으로써 ASEAN의 국제적 위상 강화와 역내 시장확대를 추구하는 시기이며, 넷째, 1997년 ASEAN 30주년 기념행사에 한·중·일 정상들의 초청이 추진되었으며, 메콩강 개발 협력 계획의 실현 의지를 재확인하고, ASEAN Vision 2020 수립을 추진하였다. 다섯째,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각종 교류사업 추진을 위한 ASEAN 재단이 발족하였으며, ASEAN의 21세기의 발전상을 제시한 ASEAN Vision 2020이 채택되었다.

2. ASEAN의 구성

가. ASEAN 회원국

ASEAN은 창립 당시 5개국으로 구성되었으나, 75년 월남전 종결을 계기로 동남아 평화 및 자유·중립지대 구상과 “동남아 우호협력조약”의 대상범위를 인지 3개국(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및 미얀마를 포함한 지역으로 확대하는 구상이 대두되었다. 이후 브루나이가 1984년에 ASEAN 회원국으로 가입하였으며, 1992년 7월 베트남과 라오스의 “동남아 우호협력조약” 가입 및 ASEAN외무장관회담에 옵저버 자격 참여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1995년 7월 베트남이, 1997년에 라오스와 미얀마가, 1998년에 캄보디아가 ASEAN에 가입하여 총 10개국의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2-1> ASEAN의 회원국가와 가입 년도

회 원 국	가입년도
인도네시아	1967
말레이시아	1967
필 리 핀	1967
싱 가 포 르	1967
태 국	1967
브 루 나 이	1984
베 트 남	1995
라 오 스	1997
미 안 마	1997
캄 보 디 아	1998

나. ASEAN의 역외 협의체제

1) 대화상대국 및 대화조정국

ASEAN은 회원국의 대 선진국 시장개척과 인력자원개발, 또한 ASEAN 경제협력을 위한 선진국의 재정 및 기술확보를 위해 역외 대화체제(Dialogue)를 시작하였으며, ASEAN 역외협의체제는 ASEAN 외무장관회담이후 개최되는 ASEAN 확대외무장관회담(PMC)등 장관급 회담과 개별 대화상대국과의 협의회와 같은 고위실무자급 회담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역외협력에 대해 ASEAN이 세워놓은 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의 양자관계 협력을 저해해서는 안 된다. 둘째, ASEAN의 능력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충하는 것이어야 한다. 셋째, 역외협력은 ASEAN이 구상한 사업으로서 지역적 성격을 띄고 ASEAN국가의 이익을 위하는 것이어야 한다. 넷째, 전제조건이 없어야 하며 각 ASEAN 회원국에 대하여 유사한 조건과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다섯째, 필요에 따라 합의하는 경우 ASEAN 지역 외에서도 사업실시가 가능하다. ASEAN의 대화상대국 및 대화조정국(Coordinator), 대화관계수립 연도는 다음과 같으며, 그 외에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이집트, 동구권국가, 라틴아메리카, 홍콩, 대만 등의 국가들이 ASEAN과의 대화관계수립을 희망하고 있다. 또한 대화상대국과의 협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대화조정국(Coordinator) 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3년마다 ASEAN 국가명칭 알파벳순으로 대화조정국을 윤번으로 교체하고 있다. 1997년 7월에서 2000년 7월까지

의 대화조정국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브루나이:뉴질랜드, 인도네시아:호주, 말레이시아:미국, 필리핀:캐나다, 싱가포르:한국, 태국:EU, 베트남:일본.

<표 2-2> ASEAN의 대화상대국과 역외협의체제 수립년도

대화상대국 (대화조정국)	협의체제 수립년도
호주(인도네시아)	1974
뉴질랜드 (브루나이)	1975
일본 (베트남)	1977
미국 (말레이시아)	1977
캐나다 (필리핀)	1977
EU (태국)	1980
한국 (싱가폴)	1991
인도	1995
중국	1996
러시아	1996

2) 확대 외무장관회담(Post Ministerial Conference : PMC)

PMC는 1978년 6월 ASEAN-일본간 외무장관회담이 최초 개최(방콕)된 것이 개기가 되어 1979년부터 확대 외무장관회담 정례화가 이루어졌다. 회의는 년 1회(연례 외무장관회담 직후 개최) 개최되고 있으며, 회의종류로는 첫째, 10+10 회의(전체회의)가 있다. 이 회의에는 ASEAN 10개국과 역외 대화상대국 10개국 등이 참가하고 있으며, 의장국은 ASEAN측 주최국이 담당하고 국제문제 전반에 관한 정책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둘째, 10+1 회의(개별회의)가 있다. 이 회의에는 ASEAN 10개국과 역외 대화상대국 중 1개국(ASEAN측은 대화조정국이 중심)이 참가하고 있으며, ASEAN과 개별대화상대국간 쌍무관계를 협의하고 있다.

3) 개별 대화상대국과의 협의회

ASEAN과 개별대화상대국과의 실무협의 기구로는 Dialogue, Forum, Joint Cooperation Committee 등의 명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ASEAN측의 대화조정국 외무차관 또는

ASEAN담당 차관보, 그리고 대화상대국의 외무차관 또는 차관보급이 수석대표를 맡고 있으며, 통상 18개월 내지 2년의 회의주기를 두고 있다. 그리고 회의개최장소는 대화상대국과 대화조정국에서 윤번으로 개최하고 있다. 구체적인 실무협의 기구들로는 ASEAN-Australia Forum, ASEAN-Canada Joint Cooperation Committee, ASEAN-EU Joint Cooperation Committee, ASEAN-India Joint Cooperation Committee, ASEAN-Japan Forum, ASEAN-New Zealand Dialogue, ASEAN-Pakistan Joint Sectoral Cooperation Committee, ASEAN-China Joint Cooperation Committee, ASEAN-US Dialogue, ASEAN-Russia Joint Cooperation Committee, ASEAN-ROK Dialogue 등이 있다.

3. ASEAN의 주요기구

가. 정상회담(Meeting of the ASEAN Heads of Government)

정상회담은 1976년 2월 24일 ASEAN 화합선언에 명시된 “Meeting of the Heads of Government of the member states as and when necessary(A.1): 규정에 의거하고 있으며, 개최목적 등을 규정한 문서는 없으나, ASEAN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의 성격을 띠고 있다.

나. 외무장관회담(ASEAN Ministerial Meeting: AMM)

정상회담이 종래 부정기적으로 개최되었고 1992년이래 매 3년마다 개최됨에 따라 외무장관회담이 ASEAN의 실질적인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다. 경제장관회담 (Meeting of the ASEAN Economic Ministers: AEM)

ASEAN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회원국 정부에의 조언을 작성하며, 경제협력에 관한 ASEAN 합의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의 조정 및 검토, 역내 균형발전의 단계로서 각국 개발계획 및 정책에 관한 의견교환, 그리고 회원국 정부에 의해 합의된 여타 관련사항을 실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라. 상임위원회 (ASEAN Standing Committee: ASC)

외무장관회담 미개최 기간 중 제반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설치되었으며, 차기 외무장관회담 준비, ASEAN 문화기금, 협력기금 사업안 채택 등 일상적 업무수행, 차기 외무장관회담 개최까지 시간적으로 지체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한 결정, ASEAN 각 위원회의 보고 및 권고사항을 검토 정리하여 각국 외무장관에 제출, ASEAN의 대외관계 업무처리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마. ASEAN 사무국 (ASEAN Secretariat)

1976년 2월 서명된 「ASEAN사무국 설립협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에 본부를 두고 있다. 사무총장은 5년 임기제로 공개 경쟁선임하고 있다. ASEAN은 중앙사무국과 국내 사무국을 두고 있다. 국내사무국은 각료급회의와 각급 상임위원회를 보좌하는 기관으로서 회원국의 ASEAN 사무를 처리하고 각 국내에 있어 각료회의 결정사항의 실시를 감독하고 조정하는 기관이다.

바. 기타 회의

ASEAN 내 기타회의로는 농업, 노동, 에너지, 보건, 과학기술, 환경, 사회복지 공업, 교육, 공보, 법무 분야 등 각 분야별 장관회의와 고위관리회의, 고위경제관리회의 등이 있다.

제 2 절 한중일 아세안 관광현황 및 전망

1. 동남아국가연합(ASEAN)

1) 설립배경 및 발전과정

동남아국가연합(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 ASEAN)은 동남아지역내의 결속과 대외안보의 과제를 안고 창립된 지역협력기구이다.

베트남이 공산화되고 미국, 중국, 소련의 각축 등으로 동남아 지역에 조성된 위기상

황에 대처하기 위해 설립된 ASEAN은 방콕선언에서 동남아 지역의 평화, 자유, 중립을 기치로 내걸고 창립되었다. 1967년 8월 동남아연합, 즉 ASA(Association of South East Asia)를 확대하여 발전시킨 ASEAN은 창립당시 회원국들의 국내문제 해결에만 급급하여 협력의 차원은 미미한 수준에 그쳤지만 인도차이나 반도의 공산화로 인해 ASEAN 회원국들로 하여금 국가간의 우호협력을 이끌어 내었고, ASEAN의 평화, 자유, 중립을 재천명하며, 지역내 반정부 게릴라 활동의 점증으로 인한 불안을 상호협력을 통하여 극복하고, 강대국의 동남아 지역 헤게모니(hegemony)쟁탈전을 견제하며, 지역내 경제적 고충을 상호협력과 주변국가들의 협력을 해결하여 동남아 발전에 기여한다는 ASEAN의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게 되었다.

2) ASEAN 회원국

ASEAN의 창립회원국은 5개국으로 이루어졌다. 1967년 8월 8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의 외무장관들은 방콕선언에 공동으로 서명을 했고, 이 선언을 바탕으로 ASEAN이 발족되었다. 그 후 브루나이는 1984년에, 그리고 베트남은 1995년, 라오스와 미얀마는 1997년, 캄보디아는 1998년에 ASEAN에 가입하여 현재 총 10개국이 회원국으로서 ASEAN 체제를 운영하고 있다.

<표2-1> ASENA의 회원국가와 가입년도

회 원 국	가입년도
인도네시아	1967
말레이시아	1967
필 리 핀	1967
싱 가 포 르	1967
태 국	1967
브 루 나 이	1984
베 트 남	1995
라 오 스	1997
미 얀 마	1997
캄 보 디 아	1998

3) ASEAN의 역외 대화체제

ASEAN은 회원국의 대선진국 시장개척과 인력자원개발, 또한 ASEAN 경제협력을 위한 선진국의 재정 및 기술확보를 위해 역외 대화체제(Dialogue)를 시작하였다. 이와 같은 역외협력에 대해 ASEAN이 세워놓은 원칙은 다음과 같다.

- 첫째, 기존의 양자관계 협력을 저해해서는 안 된다.
 - 둘째, ASEAN의 능력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충하는 것이어야 함.
 - 셋째, 역외협력은 ASEAN이 구상한 사업으로서 지역적 성격을 띄고 ASEAN국가의 이익을 위하는 것 이어야 함.
 - 넷째, 전제조건이 없어야 하며 각 ASEAN 회원국에 대하여 유사한 조건과 기준이 적용되어야 함.
 - 다섯째, 필요에 따라 합의하는 경우 ASEAN 지역 외에서도 사업실시가 가능함.
- 등이다.

ASEAN의 대화상대국 및 대화조정국(Coordinator), 대화관계수립 연도는 다음과 같으며, 그 외에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이집트, 동구권국가, 라틴아메리카, 홍콩, 대만 등의 국가들이 ASEAN과의 대화관계수립을 희망하고 있다.

<표 2-2> ASEAN의 대화상대국과 역외협의체제 수립년도

대화상대국(대화조정국)	협의체제 수립년도
호 주 (인도네시아)	1974
뉴질랜드 (브루나이)	1975
일 본 (베트남)	1977
미 국 (말레이시아)	1977
캐 나 다 (필리핀)	1977
E U (태국)	1980
한 국 (싱가포르)	1991
인 도	1995
중 국	1996
러 시 아	1996

4) ASEAN의 조직구성과 성격

ASEAN 창설당시 외상회의는 ASEAN의 최고기구였다. 연례 외상회의는 회원국의 순서에 따라 순번으로 열리며, 회원국 외상의 요구가 있을 때 임시 외상회의 소집이 가능하였다. 그러나 역내상황의 변화에 따라 1976년에 회원국 정상회담이 개최된 이후로는, 이 정상회담이 ASEAN 회원국의 결속과 권위를 상징하는 정치적효과를 가진 동시에 제반 공동사업을 확정하는 ASEAN의 최고기구로 정착되었다.

외상회의는 원칙적으로 연 1회 회원국의 수도 또는 주최국이 정하는 곳에서 개최되며,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등 ASEAN의 제반 중요 문제를 토의 · 결정 · 하도록 되었으나 1977년 부터는 외상뿐만 아니라 토의에 연관되는 다른 각료들도 참가하게 되어 그 명칭이 외상회의에서 각료회의로 바뀌게 되었다. 특별외상회의는 중대한 국제정세 변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주로 개최되는데, 주로 안보문제가 토의대상이 되며, 1971년 쿠알라룸푸르에서는 ZOPFAN으로 알려진 동남아 평화 · 자유 및 중립지대안(ZOPFAN : Zone of Peace, Freedom and Neutrality)선언을 성과로 내놓았다.

또한 새로운 협력정책을 제안 · 협의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보좌기구로 고위 경제장관회의 (SOM)를 두고 있다. 경제장관회의는 1972년에 설립되어 민간부문의 협력추진과 역내경제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대처 등을 목적으로 하며 산하에는 이사회, 실무그룹(Working Group), 그리고 특정 산업분야의 기업인들로 구성된 지역공업클럽(RICs : Regional Industry Clubs)등이 있으며, 미국 · 오스트레일리아 · EU · 캐나다 · 뉴질랜드 · 한국 등과 민간 경제협력 협의회 (Business Council)를 운영해 오고 있다.

2. 각 국가별 관광정책

각 국의 관광정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싱가포르

싱가포르는 한정적 자원과 현지화의 강세 등의 부정적 요소가 있으나, 동남아 중심지로서의 지역적 유리함과 인접 국가들의 경제력 향상 및 구매력 증가, 비즈니스 관광의 증가, 크루즈 산업의 잠재성, 낮은 범죄율과 안정성, 쇼핑지로서의 매력성 등을 갖고 있다.

1) 싱가포르의 관광정책

① 관광중심지로서의 발전

② 관광의 중심 그리고 비즈니스 센터, 세계적 수준의 행선지

③ 흥미로움과 기억 남을 만한 관광지

- 여행객과 관광 투자자들의 지역적인 중심지
- 관광투자 전문가의 우수한 거점
- 아이디어의 네트워크
- 힘차고 전진적이지만 한편으로는 아시아의 따뜻함과 환대로 가득찬 도시국가
의 비전
- 동양과 서양이 만나는 곳 그리고, 과거와 미래가 함께 조화를 이루는 곳
- 여행객과 비즈니스 사업가들의 지역과 지역을 넘어선 통로 역할

④ 지역적 개발과 풍부한 관광 경험을 제공하는 매력적인 유일 관광지로서의 세계 관광의 선구자

⑤ 싱가포르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적 번영 추구

2) Tourism 21(싱가포르의 관광전략)

- ① 관광상품의 재구성 : 여행목적지로서 싱가포르는 주요 고객층을 끌어들이기 위해 적절한 상품들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고객들을 싱가포르로 유치하는 것 뿐만 아니라 싱가포르에서의 경험이 만족스러워서 재방문하고 싶은 곳으로 만드는데 목표를 두어야 한다.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는 것도 좋지만 현존하고 있는 관광 매력물들을 좀더 효과적으로 묶고 주요 매력물들에 대해 확실한 정체성과 주제를 부여해야 한다. 또한, 다양하게 관광자에게 다가갈 수 있는 세계 수준의 도시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하드웨어적인 측면과 소프트웨어적인 측면 모두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이벤트나 여가 활동 유형, 투어가이드의 질, 상거래의 용이성 등 작지만 똑같이 중요한 세부사항들이 숙고되어야 한다.

② 싱가포르 관광산업의 높은 성장가능성으로 인해 개발을 위한 산업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이 전략의 목표는 세계속의 싱가포르를 위한 지역산업개발 프로그램, 우호적인 비즈니스 환경, 유효자본, 토지할당 정책, 우수한 정보네트워크 등 모두가 매우 중요하다. 적합한 규모의 전시홀에 대한 필요성, 국제여객 터미널 확장이 절실함 등과 같은 구체적인 인프라에 대한 요구도 반드시 역점사항으로 다루어 져야 한다.

○ 계획의 달성을 위한 노력들이 보다 종합적이고 포괄적이기 위해서는 집단적개발의 시각이 채택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관광사업은 따로 분리된 영역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활동의 집단체라는 것이다.

○ 유능한 인력에 대한 필요성도 반드시 강조되어야 한다. 싱가포르가 선도적인 관광센터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창의적이며 국제화된 전문가가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국제 인력 개발 프로그램이 필수적이다.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인력의 생산성을 증가시키고 더 많은 싱가포르 사람들을 관광업계로의 참여가 필요하다.

③ 새로운 관광공간의 형성

싱가포르 주변 지역은 매우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으며, 많은 관광개발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 새로운 프로젝트들은 이 지역에서 배려도를 높일 것이다. 싱가포르는 이 지역의 엄청난 잠재력을 개발할 수 있으며, 새로운 관광공간의 창출을 통해 지역내의 다른 국가들의 몇몇 관광목적지들과 함께 싱가포르 자체의 매력도를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다. 관광목적지로서의 결합과 보완적인 상품끼리의 결부는 결국 국내 경제와의 연계성을 세우기 위한 구체적인 새 방안이다. 이것은 싱가포르가 비즈니스 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을 위한 관광 요충지역이 되는 것이며, 지리적인 경계선을 없애고, 그들의 관광활동을 싱가포르 밖으로 확장시키는 것이다.

④ 성공을 위한 제휴

원-원 원칙 하에 기본을 둔 파트너쉽이 정부와 업계내의 모든 분야에서 이루어 져야 하고 또 정부와 업계간의 제휴도 이루어 져야 한다. 시작단계로 여행 목적지 마케

팅 위원회가 설립될 것이다.

- 여행 목적지 마케팅 위원회 (Destination Marketing Councils) : 상기위원회는 관광 이미지에 증진과 관광산업의 홍보자원들을 개선시키기 위한 통합적인 마케팅기구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⑤ 관광에 대한 성취

모든 좋은 아이디어들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성취감이 필요하다. 또 세계적 수준으로 달성되기 위해서는 적당한 열정과 헌신이 요구된다. 관광은 모든이들의 비즈니스라는 것을 인식하고 동시에 싱가포르 관광청이 다기구 접근법(multi-agency approach)을 채택하여 관광산업의 종주국으로서의 역할을 맡을 것이다.

싱가포르 관광청은 관광목적지와 모든 관련기업과 단체들을 위한 원스톱 대행점으로써 마케팅하기 위한 새롭고 혁신적인 방법을 지속적으로 추구할 것이다.

나. 태국

1) 태국 관광산업의 정책방향

- ① 국가 정체성과 문화 유산을 유지하면서 지속적인 관광개발을 통해 자연환경과 함께 예술, 문화, 관광자원의 보존과 부흥을 촉진시킨다.
- ② 관광과 관련해서 파생되는 문제를 예방, 해결하고 관광객 유치를 위해 민간 그리고 지역사회의 협력을 촉진시킨다.
- ③ 정보통신기술과 연계된 관광시설의 개발을 지원한다.
- ④ 태국을 지역내 관광거점지로 알리기 위해 통신, 교통시스템의 개발과 관광개발, 마케팅에서 인접국가와의 협력을 촉진시킨다.
- ⑤ 태국인들 자신이 자연환경과 태국의 관광자원에 대해 애정과 관심을 가진 좋은 관광객이 되도록 장려하며, 외래관광객들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친절과 호의를 보이도록 격려한다.

- ⑥ 시장수요에의 부응, 자유무역에 대한 개방정책의 수용, 관광분야 고용증대를 위하여 국제수준의 관광인력 교육을 촉진시킨다.
- ⑦ 관광객 안전과 보호 방안을 강화시키기 위해 관광객들이 1992 관광사업과 가이드법령 하에서 보호되도록 보장한다.
- ⑧ 태국인들의 삶의 질을 제고 시키는 데 관광산업이 주요역할을 담당하도록 촉진한다.
- ⑨ 태국내 각 지역의 수용력을 고려하면서, 장기간 체재, 고비용 지출, 다지역 여행, 외래관광객의 증가를 촉진시킨다.
- ⑩ 각 지역사회와 국가의 이익을 위해 태국인들이 연중 광범위한 여행을 통해 보다 나은 이해력을 갖도록 한다.
- ⑪ 필요한 경우 합작 벤처 사업을 위한 적절한 관광 사업 운영을 고려한다.

또한, 태국 정부 관광청은 새로운 천년을 시작하는 2000년을 맞아 매혹적인 태국 2000, 새천년을 깨우는 영원한 매혹이라는 주제 테마를 가지고 각종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그리고 기존의 타겟 그룹외에도 건강, 골프, 불교, 모험관광 등 새로운 타겟 그룹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모션 활동 강화와 새로운 관광지 홍보에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민간 부분과 협력하여 일반 소비자와 관광업계를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고 새로운 관광지 개발에 나서기로 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다. 일본

전반적인 사회환경의 변화와 함께 일본의 관광정책에 있어 두드러진 변화는 관광의 전략화라고 할 수 있다. 1990년대 전반까지 관광분야에 대한 일본정부의 관심은 매우 소극적이었다. 그러나 이후 관광을 통해 다양한 목적을 이루려는 시도를 살펴 볼 수 있는데 국민생활의 질 향상, 21세기를 맞아 추진중인 경제구조 개혁에의 기여도 증대 및 국제사회에의 공헌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본의 관광정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① 관광산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제고 및 관광산업 진흥을 위한 다양한 시책의 추진을 들 수 있다. 종사원들의 자질 및 자부심 향상을 위한 장려제도의 도입, 우수한 전문인력 배출을 위한 관광관련 대학 증설, 관광산업의 시너지 효과 극대화를 위한 관광분야 내 개별 업종들의 체계화, 조직화 등의 적극적인 추진이 가속화 될 전망이다. 이미 우수인력 배출을 위한 관광관련 대학 증설이 90년대 중반 이후 두드러지고 있으며, 관광업종간 연계 활동이 적극 추진되고 있다.
- ② 일본인의 국내 여행 촉진을 위한 여행가격의 저렴화, 여행상품, 서비스의 다양화 및 차별화를 들 수 있다. 일본의 높은 물가수준, 다양한 저가격 해외여행상품의 등장 등으로 일본인의 국내관광이 가격 뿐만 아니라 여행상품의 질적 측면에서도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여행 가격의 저렴화를 위한 다양한 할인 제도 도입, 지역특성을 최대한 반영한 관광상품개발, 여행상품의 다양화 및 관광서비스 제공의 원활화를 위한 지방광역연계 추진 활동이 가동되고 있다.
- ③ 휴가제도의 개선, 관광객 층의 확대를 통한 복지관광의 실현을 들 수 있다. 일부 경축일을 월요일로 지정함으로써 연휴를 제도적으로 창출하고, 부모의 휴일에 맞추어 학생들의 휴일 선택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이 지속적으로 검토함으로써 휴일의 양적, 질적 개선을 도모하고 있다. 나아가 지금까지 관광 소외 계층이었던 장애인나 고령자의 관광촉진을 위해 숙박시설, 교통수단, 여행 정보 제공 등의 환경정비를 적극 추진해 나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일부 여행사들의 경우 장애인나 고령자들이 참가 할 수 있는 해외 여행 상품을 개발해 나가고 있다.
- ④ 국제관광교류의 확대를 들 수 있다. 이는 일본인의 해외여행을 촉진하여 국제 감각을 육성하고 방문국에 관광의 경제적 효과를 이전시키려는 취지에서 추진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 중심내용은 과거와 달리 자매도시 및 지방 자치 단체간 교류, 스포츠 및 이벤트 교류 등의 교류형 관광의 촉진, 해외수학여행이나 체험여행 등의 학습형 관광의 충실화 등이다. 이를 위해 2국간 관광협약, 지역별 국제 관광 교류 촉진 포럼의 설치가 확산될 전망이다.
- ⑤ 방일 외래 관광의 적극적인 육성을 들 수 있다. 외래 관광객의 증대는 경제적 목적에서 뿐만 아니라 외국인에 대한 일본의 정확한 이해 및 국제마찰 해소를 위

해 적극 추진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국제컨벤션 및 국제이벤트를 적극 진흥시키고, 방일 외래객의 일본 내 여행비용 저렴화를 위한 각종 할인제도의 도입이 확산될 전망이다. 특히 일본의 외래객 유치증대 측면에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국제회의의 유치를 위해 45개의 도시가 국제회의 관광도시로 지정되어 있다. 한편, 외래시장의 적극적인 개척활동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특히 중국을 아시아시장 확대를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두드러지고 있다.

- ⑥ 관광을 통한 지역 진흥의 추진을 들 수 있다. 21세기를 맞아 일본경제구조가 중앙 집중형 경제구조로부터 지역 자립형 경제구조로 전환됨에 따라 지역밀착형 산업으로 관광산업에 높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관광 입현(立縣)추진 운동, 복수의 지자체가 협력하여 목적지의 관광매력을 증대 시키려는 지방광역연계추진 활동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전망이다.

다.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의 관광산업은 지니고 있는 잠재력에 비하여 상당히 낙후되어있는 실정이다. 또한, 태국이나 말레이시아 같이 관광산업이 우선 개발산업(Top priority industry)에 속해 있는 것도 아니다.

태국이나 말레이시아와 비교하여 전혀 손색이 없는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적절한 개발이 뒤따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에 인도네시아의 관광산업은 아직 초보적인 단계이다.

관광지로는 자바와 발리 외에는 잘 알려진 곳이 없고 새로운 관광지들은 접근 교통망의 미비 및 숙련 종사원의 부족으로 인하여 높은 수준의 서비스는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여행사 수가 늘어남에 따라 숙련인력부족으로 서비스 질이 크게 저하되었으며 식품 가격, 연료비, 서비스 요금의 상승에 따라 여행물가가 크게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며, 항공좌석과 호텔의 부족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2005년 까지 호텔객실은 110,000실 추가건설 예정이고, 1993년의 인도네시아의 아태 지역 점유율은 3.5%였고, 2000년에는 5.3%, 2005년에는 6.1%(1,100만 명)가 예상된다.

인도네시아의 관광정책은 다음과 같다.

- ① 환경을 위해서 관심을 갖고 목표의 개발에 노력
- ② 과학기술이용과 시스템의 완성을 통한 서비스 질 향상
- ③ 인재 개발
- ④ 분야별 교류 촉진을 위한 입법 강화
- ⑤ 접근성의 증대
- ⑥ 산업환경 강화와 사적 영역의 역할 증대
- ⑦ 어린이와 장년층을 위한 섬 여행 개발
- ⑧ 상품의 다양성 증대
- ⑨ 마케팅 촉진
- ⑩ 관광의식의 고양

라. 중국

1989년 천안문 사건이후 잠시 주춤하던 관광시장은 그 후 꾸준한 성장세를 유지하여 1991년과 중국 친선 방문의 해(Friendly Sightseeing Year)였던 1992년에는 전년대비 각각 21%와 14%를 이룩하는 성장률을 기록했다. 이러한 중국방문 해외관광객 증가의 배경은 중국 정부의 관광객 유치에 위한 꾸준한 노력의 결과이다.

1992년 가을, 전인대 14회 회의기간동안 중국정부는 사회주의하의 시장경제 정책수립을 천명하였고, 이는 중국이 이전보다 더욱 문호를 개방하고, 경제를 시장경제체제로 운영할 것임을 밝힌 것이다. 이 시기의 주요 경제활동으로서, 관광산업은 더 많은 지역을 외국 투자자들에게 개방하고, 국제관광객 유치에 힘쓰고, 중국국민의 해외여행을 촉진하기 시작했다. 따라서 이 기간동안에 수립된 관광정책들은 주로 국가관광계획 1986-2000 에서 설정된 목표를 수행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여유국은 처음으로 태마의 해, 주요시장, 고유시장을 구성하는 홍보 전략을 수립하였고, 1997년에 홍콩의 중국반환을 계기로 중국방문의 해를 정했다. 고유시

장전략은 아웃바운드의 성장잠재력을 갖고 있는 국가들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한국이나 독일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아세안 국가들 중의 무슬람을 위해, 여유국은 비단길의 유적들을 홍보하였고, 홍보 캠페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공식적으로 1993년에 PATA에 가입하였다.

이 시기에 중국의 관광산업은 도약하기 시작하여, 3720개의 호텔과 3826개의 여행사, 34개의 항공사를 소유하고, 직접적으로 1백만 명 이상을 고용하였으며 간접적으로는 5백만으로 추산되는 인원을 고용 창출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인의 해외여행이 급속하게 증가한 요인으로는 중국정부의 여행규제완화와 경제성장을 들 수 있다. 경제성장으로 인한 해외 상용여행(Business trip)에 대한 증가율도 높아졌고, 경제성장에 따른 소득상승은 해외관광여행객 및 상용여행객을 증가시켰으며 증가가 두드러진 지역은 개방화가 된 광둥지역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앞으로 중국정부의 적극적인 홍보정책 등으로 인해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된다.

마. 캄보디아

캄보디아에서의 관광은 경제의 재건설을 위한 중요한 기회로 간주되고 있다. 관광정책은 다음과 같다.

- ① 중요관광 개발 지역 : Phnom Penh, Siem Reap, Shihanoukville, Krong kep, 그리고 다른 산악지역과 해변등의 다른 관광지가 있다.
- ② 관광개발은 공적, 그리고 사적 영역으로 나뉘어서 진행될 것이다.
 - 사적영역 : 내각은 미래의 관광촉진과 안정을 위하여 사적 투자를 강조시킨다.
 - 1) 호텔과 레스토랑의 건축과 보수 같은 사적영역에 의한 관광개발과 계획 추진
 - 2) 관광지의 개발과 복구
 - 공적영역 : 관광부의 medium year(3sus) 전략계획 (1996-1998)
 - 1) 행정조직의 재구성
 - 2) 관광의 공공 서비스의 질적 향상
 - 3) 관광자원의 보존
 - 4) 인재개발

- ③ 캄보디아 정부는 Phnom Penh, Siem Reap, Sihanoukville 3군데의 중점 관광개발을 위해 국제표준의 호텔건설, 관광지 개발과 같은 관광개발을 위해 국내 및 국제적 기업의 투자회사를 초청하였고 해외 투자자들과 새로운 호텔건설과 수리와 같은 계약을 체결 하였다.

마. 미얀마

관광발전관리위원회(TDMC)는 국가평화발전위원회의의 의장인 장관으로 구성되어 있고 장관과 관광부서와 관련있는 부장관들로 구성된다. 관광발전관리 위원회는 다양한 과업의 12개 하위 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고위급 위원회는 잠재력있는 경제부분으로 인식된 관광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 관광정책은 다음과 같다.

- ① 관광은 국경지대 뿐만 아니라 멀리 떨어진 지역 까지도 부의 재분배를 할 수 있는 국가의 전체적 발전의 의미이다.
- ② 관광을 통해 다른 국가의 이해와 문화교류를 촉진시킨다.
- ③ 관광은 외화획득과 고용 창출, 그리고 현대 건축의 하부구조 등을 가속화 시키는 중요한 경제의 한 부문이다.
- ④ 관광은 전통적, 종교적으로 중요한 장소를 보존하고 개발 하기 위한 계획과 통제된 방식을 통해 개발될 것이다.
- ⑤ 관광은 적절한 절차를 통해 자연적 환경에 손상을 입히지 않는 범위내에서 개발될 것이다.
- ⑥ 관광은 문화적 유산과 전통 그리고 국가 정체성에 피해를 입히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발될 것이다.
- ⑦ 관광은 자연환경과 문화적 유산에 기반을 둘 것이다.
- ⑧ 관광의 발전은 발전의 하부구조, 국가의 경제 그리고 관광성장에 관련된 사회적 가능성등과 발전의 속도를 맞춘다.

바. 필리핀

외래관광객수는 1970년대 중반 동안에는 급속한 성장을 기록했고, 1973-1978년에는 평균 매년 33%의 성장을 이룩했으며, 1980년에는 100만 명을 기록했으나 정치의 불안정으로 인해서 1980년대 초반은 계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1986년 마르코스 대통령의 실각이후 성장세는 회복되었으나, 1989년 쿠테타발생, 1990년 주요 관광지인 비기오시(Bagiuo)에의 지진발생, 태풍등으로 인해 전년대비 마이너스 14%의 성장을 이룩했다.

1991년 Pinatubo 화산폭발, 걸프전, 세계경제침체(특히 일본과 미국)등으로 마이너스 7%의 성장을 기록했으나, 1992년 여타 아세안 국가들(부르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싱가포르)과 공동으로 1992년 아세안 방문의 해 홍보를 통한 외래객 유치증진을 도모한 결과 1992년에는 21%의 성장을 보였으며, 회복된 이미지, 향상된 안정성, 강한 마케팅 등으로 인해 1993년에는 19%까지 성장율이 회복되었다.

1993년에는 아태 지역에서의 시장 점유율이 1.4% 였고, 2000년에는 1.6%, 2005년에는 1.7%가 예상된다.

관광부의 2001-2003의 계획은 다음과 같다.

- ① 관광을 통해 국가와 지역 내에서의 경제적인 성장 특히 더 나은 생활과 가난 극복에 최대한 이용한다.
- ② 적극적인 참여와 계획, 수단 그리고 관광 프로그램에서 지역의 주주들의 리더쉽을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관광을 개발한다.
- ③ 관광 구성에 있어서 남용과 파괴에 대해서 스스로 규제하는 관광의 형태가 되도록 촉진한다. 특히 여자, 아이들 그리고 토착민들처럼 사회에서 뒤쳐진 부분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한다.

사. 브루나이

브루나이의 관광 비전은 동남 아시아 관광의 출입문으로써 또한 독특한 관광지로써의 국가로 촉진하는 것이다. 비전의 목적은 휴양지로써의 브루나이의 국제적 인식의 창출, 외화 획득의 극대화과 관광을 GDP의 주요 요인으로 만들고 더 나아가 관광은

직업창출의 기회로까지 극대화 시키며, 관광객들에게 다양하고 매력적인 브루나이를 체험 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브루나이의 매력적인 관광지는 flora 와fauna 에 열대 다우림과 국립 공원들이 있으며, 거대한 이슬람 성원과 수상마을, 그리고 풍부한 문화와 jerudong 테마 파크가 브루나이의 독특함과 잘 어울어 진다.

정부는 이제 능동적으로 관광을 중요한 분야로 촉진하고 있으며, 1999년 1월부터 8월까지 관광객이 405,532였고 2000년 까지는 백만 명을 유치할 계획이다.

아. 베트남

베트남의 관광산업은 북부 베트남에 평화가 온 지 6년 후인 1960년에 시작하였으나 1964년까지도 베트남 관광산업은 내전의 포화 속에서 시달려야 했다. 1975년 4월 30일 전쟁이 끝난 후 기대를 모았던 베트남 관광산업은 다시 교역봉쇄라는 새로운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1991년에 비해 1992년에는 44만 명의 외래관광객을 받아 들여 47%의 성장율을 기록했으며 관광수지는 미화 5천만달러로 전년대비 53%의 성장을 기록하는 등 관광정책은 국가적 경제구조의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자. 말레이시아

1990년에는 말레이시아 방문의 해의 홍보전략으로 전년대비 53.7%의 외래객 증가율을 보였으나, 1991년은 걸프전과 세계경제 침체로 인해 전년대비 마이너스 21.5%를 기록했다. 1992년은 물가의 상승, 국제공항의 화재로 인한 불안한 이미지 조성 등으로 인해 전년대비 3%의 성장에 그쳤다. 1993년에는 새 Visa규정(인도, 파키스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을 폐지하였다.

자연 환경보호를 엄격히 지키고자 하는 법이 있는 몇 안 되는 나라중의 하나로써 생태관광(Eco-tourism)등 자연에 관심이 많은 추세에서 서구로부터의 자연경관이 수려한 말레이시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말레이시아의 아태 지역 점유율은 2000년에는 5.9%, 2005년에는 5.3% 점유할 것으로 전망되고 2005년 까지는 호텔 객실 70,000실을 추가로 건설할 예정이다.

차. 라오스

관광 개발 정책은 계획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광에 있어서의 계획, 개발, 관리의 정책결정에 있어서의 하나의 틀을 제공한다.

이것은 관광 개발 정책이 국가의 전체적인 발전 정책을 보여 주는 포괄적인 국가발전 방향이기 때문이다.

관광정책은 다음과 같다.

- ① 지속가능한 관광의 의미에서 관광개발은 관광의 자연적, 역사적 그리고 문화적 자원을 보존하며 심각한 환경이나 사회문화적 문제를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라오스가 관광객들이 바라는 최고의 만족스러운 행선지로써 그리고 사회에 골고루 관광의 혜택이 돌아가도록 관광지역에서의 환경의 질을 높이고 유지한다.
- ② 국가의 주요 경제분야로써의 국제 관광을 개발하는 것은 기본적인 고용 창출과 수입, 외화획득, 국가의 수입 그리고, 다른 경제적 분야의 확장에 파급효과를 남게 한다. 또한 국제관광을 통해 라오스의 독특한 환경적, 역사적 그리고 문화적인 유산을 세계에 소개 한다.
- ③ 높은 수준의 관광개발은 국가의 천혜의 자연적 · 역사적 · 문화적 모습을 기본으로 하며 또한, 역사적 · 문화적 유산과 천혜의 자연환경을 동경하는 관광자에게 매력적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특별히 일반적인 관광과 생태관광, 특별 목적 관광, 모험형 관광, 그리고 **village tourism** 들이 적당하며, 관광의 형태에 있어서는 사회적 · 환경적 또는 보건상의 문제나 국가에 대한 좋지 않은 이미지들은 배제될 것이다.
- ④ 지역사회와 관련된 자연보호 프로그램과 관련된 생태계, 야생동물, 강 유역과 경관이 좋은 지역의 보호와 같이 자연환경의 보존과 보호의 틀 안에서 관광은 개발될 것이다.
- ⑤ 고고학적, 역사적 지역과 문화적 전통, 그리고 국가내의 소수민족의 문화적 정체성의 증진과 관련된 틀 안에서 관광은 개발될 것이다.
- ⑥ 지역사회와 또한 관광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다른 사회적 분야와 같이 사회 전

분야에 관광의 혜택으로 인해 새로운 기회가 창출되어야 한다. 또한 같은 맥락으로 국가적 정책은 관광개발에 있어서 국내외적 투자가 증진되어야 할 것이다.

- ⑦ 관광 개발이 논리적 방식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관광개발을 계획하고 조화시켜야 하며, 국가적, 지방적 그리고 지역적 개발 프로그램을 종합적으로 집대성해야 한다. 또한 어떠한 관광상품이라도 즉, 서비스, 인프라, 편의시설, 매력물 등은 관광시장의 크기와 모양에 균형을 맞추어 개발 해야 한다.
- ⑧ 적절히 계획되고 편리한 관광시설과 서비스 그리고 하부구조가 양질의 관광을 위해 제공되어야 하며, 이로 인하여 어떠한 환경적 문제도 발생해서는 안된다. 또한 관광 교육 시설과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현지 직업시장에 많은 혜택이 돌아가야 하며 이를 통해 양질의 취업자들이 관광분야에서 일할 수 있어야한다.
- ⑨ 라오스 국민들을 위한 국내관광을 개발하여 레크레이션 활동과 자국민들이 자신의 나라에 대한 이해와 역사, 문화적 유산 그리고 관광지에 대한 접근성을 좋게 하며, 그들에게 편의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내관광은 자국민들에게 특히 도시로부터 시골로 경제적인 혜택을 나누어줄 것이다.
- ⑩ 공적영역과 사적영역의 효과적인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일반적인 목표에 다다를 수 있도록 관광을 개발하고 관리한다.
- ⑪ 지속적인 효율성과 공적영역·사적영역의 협동을 기본으로 한 조화된 관광의 경영, 효율적인 조직구조와 법적 그리고 다른 제도상의 구조, 사회경제학적·환경적 영향력의 제어와 관광의 진행에 따르는 모든 양상들을 감시하는 것 등을 강화해야 한다.

3. 한중일 아세안 관광 현황 및 전망

최근 들어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동아시아의 비중이 점차 증대되고, 역내경제의 상호 의존성도 급속히 높아감에 따라 역내국가들간 협력강화의 필요성이 중요 시 되고 있다.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세계화시대에 있어서 어느 한나라나 지역도 주변국가나 세계의 다른 지역의 위기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 각국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

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국의 경제운영을 튼튼히 하는 것과 못지 않게 세계경제나 지역경제가 다같이 안정되고 발전되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러한 시점에 ASEAN은 1990년대 들어서 정치외교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우리의 중요한 파트너의 하나로 등장하고 있다. 먼저 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ASEAN은 미국, 일본, EU에 이어 한국의 제4위 교역상대로서 위치를 유지해 오고 있으며, 해외투자 부문에 있어서도 미국에 이어 우리의 제 2위 투자대상 지역으로서 중요성을 갖고 있다. 또 ASEAN은 한국의 제 1위 해외건설 수주지역으로 새롭게 부상하고 있다.¹⁾

한국과 아세안 각국은 양국간 경제협력을 보다 강화하기 위하여 매년 정상회담, 외무, 경제 및 통상장관회담, 각종 공동위 등을 수시로 개최하여 양자간 통상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태국과는 11월 제 11차 한·태 무역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관세평가방법 개선, 관세 및 부가세 환급, 국제입찰시 현지은행 복보증 문제 등 양자간 통상현안 문제를 해결을 위하여 협의하였고 양국간 자유무역지대 설치가능성 검토 연구추진을 합의하는 등 양국의 상호 관심사에 대한 의견교환 및 애로해소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였다.

베트남과는 9월 서울에서 통상장관회담을 개최, 무역·투자상의 애로 관련 베트남측에 적극적인 해결노력을 촉구하였고 베트남측은 무역역조 개선을 위한 우리 정부의 진지한 노력을 요청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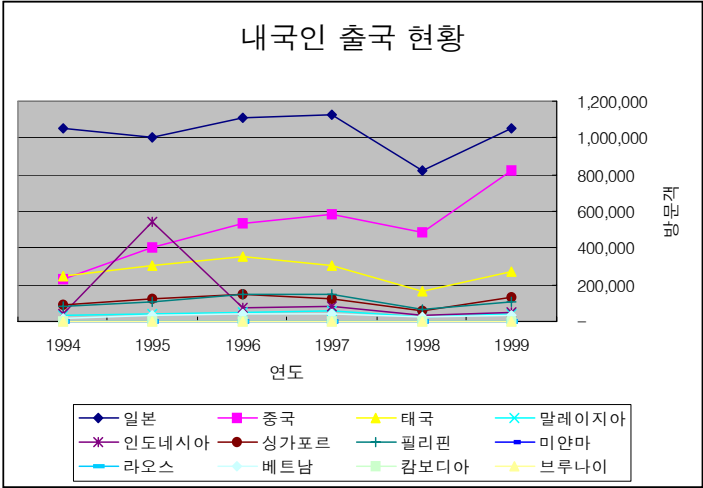
상기 외에도 태국, 싱가포르, 필리핀과 양자 정상회담을 개최하여 양국간 실질협력 관계 증진 방안에 대한 양국 정상간 의견교환 등 상호 이해를 제고하는 기회도 가졌다. 또한 아세안 각국과 한국, 중국, 일본은 “10+3 정상회의”를 1997년이래 매년 개최하여 협력의 수준을 양자뿐만 아니라 지역간 협력의 수준으로 격상시키고 있으며, 1999년 마닐라 정상회의에서는 동 회의를 정례화하기로 하는등 그 관계가 날로 심화·발전하고 있다.

가. 한국인 출국 현황

한국인의 ASEAN 국가 방문자수는 해외여행 자유화정책과 함께 1996년까지 급속히 증가해 왔으나 1997년부터 외환위기의 여파로 다소감소 하였고, 중국, 일본으로의 1999년 방문자 현황을 보면 일본 약 105 만 명, 중국 약 82 만 명으로 경제위기를 맞아 급

1) ASEAN 개황, 외무부, 1996, pp.50-53

속히 감소하였던 방문자수가 1999년부터 다시 증가추세이며 경제회복 심리와 함께 그동안 누적된 수요로 해외여행객은 계속 증가될 전망이다.



[그림 2-1] 내국인 중,일, 아세안지역 출국현황

<표 2-3>중, 일, 아세안지역 출국 현황

	1999	1998	1997	1996	1995	1994
일 본	1,053,862	822,358	1,126,573	1,111,316	1,000,190	1,051,865
중 국	820,120	484,009	584,487	532,332	404,421	233,675
태 국	269,700	166,867	302,085	351,610	307,000	246,645
말레이시아	41,464	27,453	53,435	53,169	40,429	31,066
인도네시아	49,276	36,446	83,783	70,308	540,120	41,391
싱 가 포 르	127,630	57,583	122,964	144,705	123,957	92,724
필 리 핀	109,563	62,616	148,645	146,113	105,490	84,324
미 얀 마	2,233	1,867	2,209	1569	915	401
라 오 스	187	106	131	69	64	31
베 트 남	36,331	27,570	44,199	44,863	30,181	18,101
캄 보 디 아	1,677	1,064	1,240	728	193	27
브 루 나 이	129	229	363	403	295	198

<표 2-4 > 내국인 순위별 출국 현황

순 위	1995		1996		1997		1998		1999	
	국적	방문자수	국적	방문자수	국적	방문자수	국적	방문자수	국적	방문자수
1	일본	1,000,190	일본	1,111,316	일본	1,126,573	일본	822,358	일본	1,053,862
2	미국	657,804	미국	839,573	미국	806,264	중국	484,009	중국	820,120
3	중국	404,421	중국	532,332	중국	584,487	미국	425,330	미국	571,332
4	태국	307,000	태국	351,610	태국	302,085	태국	166,867	태국	269,700
5	홍콩	226,098	홍콩	245,737	홍콩	217,864	홍콩	122,577	홍콩	168,456
6	대만	128,413	호주	174,909	호주	192,129	호주	62,742	싱가포르	127,630
7	괌	124,098	괌	158,008	필리핀	148,645	필리핀	62,616	필리핀	109,563
8	싱가폴	123,957	필리핀	146,113	싱가폴	122,964	대만	62,167	호주	97,436
9	호주	120,497	싱가폴	144,705	캐나다	100,512	싱가포르	57,583	캐나다	82,581
10	필리핀	105,490	대만	111,769	괌	96,280	캐나다	55,413	대만	74,992
11	영국	61,883	캐나다	89,256	대만	90,521	독일	42,977	독일	73,355
12	캐나다	61,694	영국	85,407	영국	87,063	인도네시아	36,446	영국	58,984
13	프랑스	57,411	인도네시아	70,308	인도네시아	83,783	영국	35,228	인도네시아	49,276
14	독일	53,414	뉴질랜드	66,505	독일	66,218	프랑스	29,214	프랑스	47,421
15	뉴질랜드	51,799	프랑스	62,848	프랑스	61,972	베트남	27,570	말레이시아	41,464
16	인도네시아	50,120	독일	62,221	뉴질랜드	59,881	말레이시아	27,453	괌	37,364
17	말레이시아	40,429	말레이시아	53,169	말레이시아	53,435	러시아	18,306	베트남	36,331
18	베트남	30,181	베트남	44,863	베트남	44,199	뉴질랜드	17,366	뉴질랜드	30,478
19	이태리	29,995	이태리	36,969	이태리	38,938	괌	14,798	러시아	26,837
20	러시아	29,372	스위스	34,906	러시아	30,328	이탈리아	11,869	이탈리아	21,361
21	네덜란드	28,227	러시아	30,429	스위스	28,697	인도	10,428	네덜란드	14,039
22	스웨덴	26,802	네덜란드	30,306	네덜란드	24,939	네덜란드	8,433	스위스	13,865
23	이집트	12,267	마카오	21,553	마카오	20,630	브라질	7,672	인도	13,220
24	인도	7,663	마이크로 네시아	16,443	인도	13,287	스위스	7,505	이집트	6,457
25	마이크로 네시아	5,894	이집트	12,158	마이크로 네시아	11,308	멕시코	4,020	브라질	6,301

나. 외국인 입국현황

한국을 방문하는 전체 외래방문객 중 아세안국가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1990년 6.8%에서 꾸준히 상승하여 1999년에는 10%를 넘어서고 있다. 이와 더불어 1999년 한국을 방문한 일본의 방문자수가 2,184,121명으로 전체 방문자수 4,659,785명의 47%를 차지하며 중국 역시 전체의 7%를 차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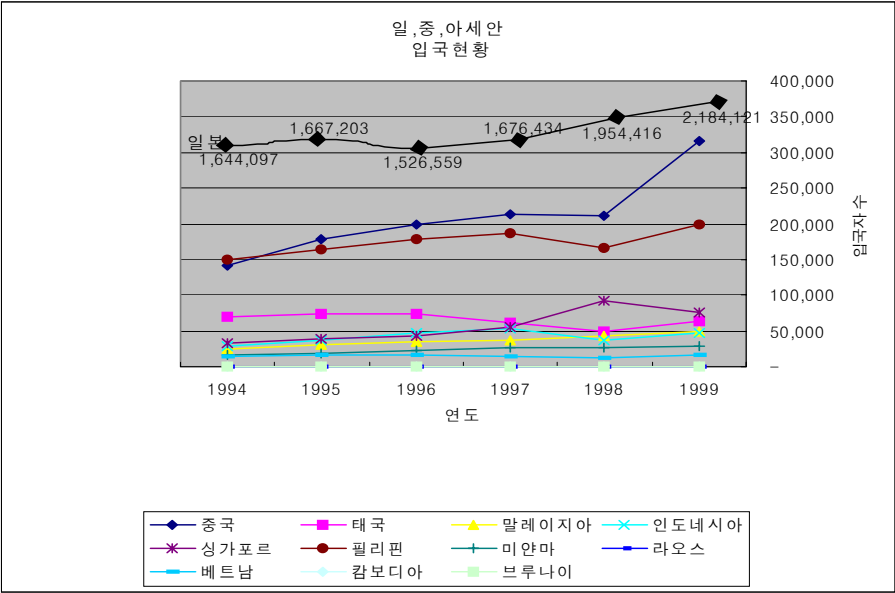
아세안 국가와 일본, 중국의 방문객수가 전체의 64%를 넘고 있다. 이중 아세안 10국 중 7개국은 한국에 방문객을 송출하는 25개 주요국가에 계속적으로 포함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방한 아세안 국가 중에서 필리핀이 1988,583명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는데, 이는 순수 여행객이라기 보다는 근로자의 입국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그 다음은 75,335명의 싱가포르, 태국(63,679), 말레이시아(48,435), 인도네시아(47,019), 미얀마(29,103), 베트남(16,121) 순 이다.

<표 2-5> 중 · 일, 아세안 외국인 방한 현황

	1999	1998	1997	1996	1995	1994
일본	2,184,121	1,954,416	1,676,434	1,526,559	1,667,203	1,644,097
중국	316,639	210,662	214,244	199,604	178,359	140,985
태국	63,679	49,973	62,374	74,162	73,770	69,343
말레이시아	48,435	42,554	36,459	34,957	31,145	25,597
인도네시아	47,019	36,486	53,204	46,570	37,723	28,848
싱가포르	75,335	92,672	55,805	43,338	38,577	33,341
필리핀	198,583	165,272	187,235	178,045	163,228	149,195
미얀마	29,103	26,303	27,612	22,099	18,520	16,376
라오스	134	130	90	98	38	41
베트남	16,121	1,1561	14,102	16,750	16,720	13,459
캄보디아	514	181	192	97	70	59
브루나이	237	385	306	242	162	219

자료 : 한국관광공사 내부자료, 2000년

한국관광공사, 「1998한국관광통계」, 1999



[그림 2-2] 일·중, 아세안 입국현황

<표 2-6> 외국인 순위별 방한 현황

순 위	1995		1996		1997		1998		1999	
	국적	방문자수	국적	방문자수	국적	방문자수	국적	방문자수	국적	방문자수
1	일본	1,667,203	일본	1,526,559	일본	1,676,434	일본	1,954,416	일본	2,184,121
2	미국	358,872	미국	399,300	미국	424,258	미국	405,735	미국	396,286
3	중국	178,359	중국	199,604	중국	214,244	홍콩	229,072	중국	316,639
4	필리핀	163,228	필리핀	178,045	필리핀	187,235	중국	210,662	홍콩	234,087
5	러시아	155,098	러시아	157,401	러시아	136,847	필리핀	165,272	필리핀	198,583
6	대만	130,147	대만	114,729	대만	104,144	러시아	135,401	러시아	127,892
7	홍콩	100,407	홍콩	77,958	홍콩	96,650	대만	108,880	대만	110,563
8	태국	73,770	태국	74,162	태국	62,374	싱가포르	92,672	싱가포르	75,335
9	영국	46,923	영국	51,373	영국	58,568	영국	51,871	태국	63,679
10	독일	46,634	독일	48,101	싱가포르	55,805	태국	49,973	영국	53,902
11	싱가포르	38,577	인도네시아	46,570	인도네시아	53,204	캐나다	46,343	캐나다	50,678
12	인도네시아	37,723	싱가포르	43,338	독일	51,648	독일	46,247	말레이시아	48,435
13	인도	35,668	캐나다	42,120	캐나다	46,948	말레이시아	42,554	독일	47,318
14	캐나다	34,475	인도	38,585	인도	42,934	인도	40,606	인도네시아	47,019
15	말레이시아	31,145	말레이시아	34,957	말레이시아	36,459	인도네시아	36,486	인도	43,829
16	호주	27,251	호주	30,694	호주	34,640	호주	31,028	호주	33,378
17	프랑스	22,295	프랑스	24,651	미얀마	27,612	미얀마	26,303	프랑스	29,424
18	폴란드	22,175	미얀마	22,099	프랑스	26,673	프랑스	25,712	미얀마	29,103
19	미얀마	18,520	폴란드	18,545	폴란드	17,514	네덜란드	13,323	베트남	16,121
20	베트남	16,720	베트남	16,750	네덜란드	14,853	폴란드	12,297	네덜란드	13,869
21	그리스	14,591	이탈리아	15,765	이탈리아	14,591	베트남	11,561	파키스탄	13,798
22	이탈리아	13,312	네덜란드	14,778	베트남	14,102	이탈리아	10,742	방글라데시	13,001
23	네덜란드	13,182	그리스	14,142	그리스	12,255	그리스	8,730	폴란드	11,975
24	방글라데시	9,662	파키스탄	13,868	파키스탄	10,286	파키스탄	8,645	몽고	11,659
25	브라질	9,362	방글라데시	12,244	스위스	8,657	스웨덴	7,540	이탈리아	11,372

제 3절 한·아세안 일반협력 및 관광협력

1. 한·아세안 관계

아세안은 우리나라와 지리적으로 가까울 뿐만 아니라 정치·경제적으로도 그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 우리나라는 아세안 10개 회원국 모두와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있으며, 이중 남북한 동시 수교국은 8개국(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태국, 싱가포르

르, 베트남, 브루나이, 캄보디아)이다. 또한, 1995년에 ASEAN에 가입한 베트남과는 1992년 12월 수교이후 1995년 4월에 공산당 서기장이 한국을 방문하는 등 양국관계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동남아 국가들은 그들의 지역협력체인 아세안을 통해, 또는 개별국가 차원에서 한반도 문제 및 동북아 안보와 관련한 우리의 입장을 적극 지지해 온 우방으로 북한 핵문제에도 관심을 가지고 한반도 에너지 개발기구 (KEDO)에 재정적 기여를 하고 있다.(인도네시아는 KEDO 회원국으로서 65만불 기여, 이어서 브루나이 42만불, 싱가포르 40만불, 태국 30만불, 말레이시아 30만불, 필리핀 15만불 기여)

또한, APEC, ASEM, UN등 국제무대에서 우리와 유사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중견국가군으로서, 이들 동남아 국가와의 긴밀한 협력은 우리의 전방위 외교전개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동아시아 경제의 비중이 점차 증대되고, 역내경제의 상호의존성도 급속히 높아짐에 따라 역내국가들간 협력강화의 필요성은 그 어느때 보다도 절실히 지고 있다. 1998년도를 기준으로 할 때 동아시아 경제는 세계 GDP에서 약 20%를 점유하고 있고, 세계 총교역량의 19.2%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동아시아 지역의 경제가 활발한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 향후 세계 경제에서의 위치나 교역비중은 더욱 증가될 전망이다. 동아시아 국가들의 교역에 있어서 역내교역 또한 눈여겨 보아야 할 대목이다. 1990년대 중반부터 역내교역 비중이 높아져 외환위기 발생직전인 1996년에는 40% 수준에 근접하였다. 역내 직접투자 또한 1980년대 중반이후 전체 해외 투자에서 거의 절반이상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ASEAN 경제교류는 1980년대 후반부터 급속히 증대되기 시작하여 1990년에 총 교역량이 최초로 100억불을 초과하였으며 투자부문도 1989년부터는 매년 1억불 이상을 기록하기 시작하여 1999년에는 55억 달러의 제 3위 무역흑자 그리고 16억 달러의 건설수주를 기록하였으며, 동남아 국가들은 제반 경제사정이 호전되어 가고 있음을 감안할 때 경제협력 대상으로서 동남아지역은 더욱 중요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1) 한·아세안 대화관계

한·아세안 대화관계는 1989년 7월 브루나이에서 개최된 제 22차 ASEAN 외상회담에서 한·아세안 부분 대화관계(Sectoral Dialogue)수립이 결정된 후, 같은 해 11월 한·

아세안 합의각서 교환으로 협의 체제가 정식으로 출범하였다. 당초 협의된 한·아세안 협력분야는 크게 통상, 투자, 관광 등 3개 분야로서, 우리나라는 부문별 대화체계 발족 시 1990년부터 5년간 연 1백만불씩 총 5백만불의 특별협력기금을 제공키로 ASEAN측과 합의하였다. 그 후 1991년 7월 ASEAN외무장관회담에서 한·아세안 완전대화관계(Full Dialogue)를 공식 결정하였으며, 협력분야를 기존의 통상, 투자, 관광에 기술이전, 개발협력, 인적자원개발 분야로 확대하기로 합의하였다. ASEAN과의 대화관계가 수립된 것의 중요성은 우선 아·태 시대에 대비하여 우리나라의 외교 기반이 확대되었다는 데 있다. 또한 ASEAN 확대외무장관회담(PMC)에 참가할 수 있게 되어, ASEAN 및 여타 대화상대국인 선진 6개국 및 중국, 러시아, 인도 등과 정기적으로 대등하게 국제 문제 전반을 논의할 수 있어 우리의 국제적 위상이 제고되었다는 데도 그 의의가 있다. 높은 성장 잠재력과 풍부한 자원을 가지고 있는 ASEAN과의 정기적 협의채널을 구축함으로써 경제적으로도 실익추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는 ASEAN의 완전 대화상대국으로의 격상을 계기로, ASEAN 측의 요청을 반영하여 1992년부터 한·아세안 협력기금을 종전 년 100만불에서 200만불로 증액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따라 우리나라는 1990년 및 1991년도에 각각 100만불, 1992~1997년간 매년 200만불을 제공하는 등, 1998년 현재까지 총 1,500만불을 제공하였다. 이러한 한·아세안 협력기금은 양측의 합의에 따라 기금관리위원회(Joint Management Committee : JMC)에서 관리하며, 기금 집행은 한·아세안 양측 합의를 거쳐 JMC에서 관리하며, 기금집행은 한·아세안 양측 합의를 거쳐 JMC에서 지출을 결정한다.

2) 한·아세안 경제관계

우리나라의 대 아세안 교역은 1990년 101억불에서 1997년 329억불로 증가하는 등 매년 20%내외의 성장을 하고 있으며, 1991년 이후부터는 계속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대 아세안 무역흑자 :1991년 10억불, 1994년 46억불, 1996년 82억불, 1997년 78억불) 무역구조는 상호보완적 바탕위에서 점차 다양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과거에는 우리가 아세안에 공산품을 수출하고 1차상품을 수입하는 구조였으나, 최근에는 아세안으로부터의 수입품목중 공산품 비중이 점차 상승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 아세안 총 교역액은 328.6억불로서, 미국 517.5억불, 일본 426.8억불, EU 358.5억불에 이어 4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1997년 현재, 대일 무역수지가 131억불 적자, 대미 무역은 85억불의 적자

를 내고 있는 반면, 대 ASEAN 무역흑자 규모는 78억불에 달하고 있다.

2. 한·아세안 경제협력

1) ASEAN 경제 개요

ASEAN 국가들은 세계에서 가장 급속한 성장을 하고 있는 지역으로 주목을 받고 있으며, 성장잠재력이 가장 높은 지역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 기업들은 이 지역을 무역 및 투자 대상지로 많은 관심을 보이면서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1990년대 이후 이 지역의 정치·경제적 안정, 시장개방 확대, 풍부한 천연자원과 양질의 노동력, 그리고 외국자본 투자유치정책과 공동유효특혜 관세(CEPT:Common Effective Preferential Tariff)의 발효에 따라 투자환경이 크게 개선되고 있다는 점이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아직 미개발된 풍부한 천연자원과 4억 8,100만(1996년 현재)의 거대한 인구규모를 보유하고 있는 ASEAN은 싱가포르를 제외한 회원국들이 1980년대 중반 이후 경제적으로 노동집약적 산업을 중심으로 공업화 정책을 추진하여 성공함으로써 비약적인 경제발전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수출촉진 및 외국인 투자증대라는 외부적 요인과 국내 산업구조 조정과 일련의 경제자유화 정책 등의 내부적 요인이 각국 정부의 강력한 정책의지에 따라 효율적으로 통합되어 이룩한 성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ASEAN은 1993년에 아세안 자유무역지대(AFTA: ASEAN Free Trade Area)를 결성함으로써 국제적인 교섭력이 한층 강화되기 시작하였고, 역내 무역의 활성화와 공동산업 프로젝트 등을 통해 산업경쟁력 또한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세계시장에서 차지하는 지분이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AFTA는 1991년 태국이 처음 제안한 것으로서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의 지지를 얻은 이후, AFTA에 유보적이었던 인도네시아가 제안한 관세인하방안인 공동유효특혜관세(CEPT)를 AFTA를 추진키 위한 수단으로 받아들임으로써 가능케 된 것이다. 이에 따라 1992년 1월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제 4차 정상회의에서 ASEAN정상들은 향후 2008년까지 15년간 공산품에 대한 역내관세를 0~5%까지 인하하여 궁극적으로 아세안 무역지대를 창설키로 공식 합의했다.

그리고, ASEAN은 지속되는 고도성장으로 인한 소득수준의 향상과 이에 따른 소비재 수입의 증대, 공업화 진전에 따른 자본재와 중간재 수요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수입규

모도 크게 증대되어 선진국 및 아시아 신흥공업국의 주요 교역 또는 직접투자 대상국으로 그 위상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2) 한·아세안 경제 협력

ASEAN은 한국에도 주요 상품 수출입 시장으로, 또한 주요 직접투자 대상지역으로 각광받고 있다. 상품 교역면에서 보면 한국의 총수출이 차지하는 아세안에 대한 비중이 1988년의 5.0%에서 1992년에는 11.2%로 급격히 상승하고 있으며, 수입비중도 같은 기간 중 6.6%에서 8.6%로 상승하고 있다. 특히 수출호조에 힘입어 1991년부터는 아세안에 대한 무역수지가 흑자로 전환되었으며, 1992년에는 15억 2천만불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수출규모의 확대와 더불어 한국의 생산설비·중간재의 아세안에 대한 수출이 급증함으로서 수출상품의 구조고도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수입면에서도 기존의 주종 수입상품인 1차산업은 물론 공산품 수입이 증대되고 있어 한·아세안 간 산업내 수평분업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1980년대 후반부터 아세안에 대한 제조업분야의 직접투자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1992년 말 기준으로 한국 해외투자 총 건수의 34.5%, 총액수의 31%를 차지하는 등 주요 해외투자 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다.

현재 ASEAN이 추진하고 있는 AFTA는 역내교역에서 제한적 품목에 대한 관세인하 및 수량제한 철폐에 중점을 두고 있는 가장 초보적인 경제통합단계이다. NAFTA의 경우 공산품은 물론 농산물을 포함하는 전 품목을 대상으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적 소유권 보호, 투자 및 서비스 시장개방 등에 대해 포괄적인 자유화를 규정하고 있는데 반해, AFTA는 기본적으로 가공농산품을 포함한 공산품과 일부 비가공농산물에 대해서만 관세인하를 규정하고있기 때문이다. 또 AFTA는 각국별로 국가안전, 공적으로 규제가 필요한 품목, 민간품목(sensitive items), 서비스 등의 분야는 제외되어있다.²⁾ 그러나, 무엇보다도 ASEAN국가들은 1980년대 중반이후 급속한 경제성장을 통하여 무역자유화의 도전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새로운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는 점이다.

ASEAN국가들이 이룩한 고도 경제성장은 각 국가들이 외국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취해왔던 탈규제, 그리고 민영화 조치 등에 힘입은 것이었다. 이와같이 자유화와 규제해제를 통하여 각국은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자국의 시장을 실질적으로

2) 『아세안 개황』, 외무부, 1996, pp.75

개방함에 따라 역내 무역자유화를 추진 할 수 있는 조건들이 성숙될 수 있었다.

<표 2-7> 1993년 ASEAN 회원국가의 경제규모

(인구는 1995년 기준)

회원국	인구(백만명)	GDP(백만불)	무역 규모(백만불)
태 국	58.8	93,310	81,642
말레이시아	20.1	46,980	99,300
싱 가 포 르	2.9	39,984	163,703
인도네시아	200.0	116,476	64,987
필 리 핀	67.6	44,908	28,422
브 루 나 이	0.3	6,640	4,300
베 트 남	74.5	13,640	6,107
라 오 스	4.9	1,027	466
캄 보 디 아	10.3	1,758	623
미 얀 마	46.5	8,310	1,411
아세안합계	486.0	372,701	450,961

제 3 장 국가간 관광부문협력 사례 연구

제 1 절 주요 관광협력 사례

1. 아세안 국가들의 관광협력

아세안국가들의 관광협력은 1978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정상회담이후 점차 활발히 사업을 진행시켜왔다. 종래에는 무역 및 관광위원회(COTT : Committee on Trade and Tourism)와 산하 기구로서 관광 부위원회 (SCOT : Sub-Committee on Tourism)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1992년 폐지된 이후로는 ASEAN 국가의 관광공사들(NTOs)이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어 협력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ASEAN NTO들은 매년 2번 국명의 알파벳 순으로 돌아가며 회의를 개최한다.(그 중 한번은 ATF(ASEAN Tourism Forum)과 연계하여 1월에 개최) 1996년 9월 ASEAN NTO 회의부터는 ASEAN의 사무국이 본 관광공사 회의에 보조를 제공하고 있으며 ASEAN 대화상대국과의 관광협력사업 기금조달 및 운영에도 공동으로 관여하고 있다.

1997년은 동 아·태 지역에 있어 1989년 이후 최악의 관광사업실적을 나타냈다. ASEAN은 외래 관광객 수에 있어 2.18%의 감소를 경험하여 1996년 3천 173만 명에서 70만 명이 감소한 3천1백만 명의 외래관광객을 입국시켰다.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의 각각 13%와 1.3%의 마이너스 성장을 한 반면, 태국은 세계적인 관광사업 침체에도 불구하고 0.41%의 성장을 기록하여 세계적으로 가장 인기 있는 20대 관광지에 계속 포함되었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및 태국 등 아세안 4국을 통합하면 아·태 지역에서 중국과 홍콩다음으로 인기 있는 관광목적지로 떠오르고 있다. 1997년 아세안을 찾은 외국방문객의 38%는 아세안국가에서, 32%는 그 외 아시아 국가에서, 그리고 15%는 유럽에서 송출되었는데 아세안 외 아시아 국가 및 유럽시장은 각각 10%와 8%의 감소를 보였다.

아세안 관광산업 협력은 공공기관과 민간차원에서 이루어져 왔다. 아세안 관광포럼

(ASEAN Tourism Forum : AFT)은 민간 관광업체들에 의해 유지되어 왔는데, 예를 들어 1999년 1월 싱가포르 AFT회의는 싱가포르의 호텔협회와 여행자협회가 주관이 되어 개최하였다. 아세안 국가의 NTO들이 주관하는 활동들에는 단일 관광목적지로서의 ASEAN지역 마케팅과 환경친화적 관광산업 추진, 관광산업에의 투자유치 및 ASEAN 관광투자 안내책자 발간, 관광산업인력 개발 및 ASEAN 국가간 관광협력사업 계획 등이 있다. 최근 ASEAN 관광협력은 2002년 ‘밀레니엄 ASEAN 방문’의 해에 초점을 두고 공동 사업구상을 하고 있다.

가. 1차 ASEAN 국가 관광장관 회의 - 1998년 1월 10일, 필리핀

ASEAN 관광산업은 1996년 이 지역 GDP의 4.4%, 아세안 총 수출액의 9.1%를 차지하는 주요산업이다. 1996년에 아세안을 방문한 외래관광객은 3,095만 명에 이르며 이는 1995년 2,964만 명에서 4.4%증가한 수준이다. 관광수입은 1995년 27억 5천5백불에서 3억 3천2백불 증가된 30억 8천7백 불이었다. 아세안 관광장관들은 아세안 회원국의 경제성장 및 고용창출에 있어 관광사업이 차지하는 역할을 재확인하고 회원국간의 지속적인 관광협력을 결의하였다. 관광장관들은 아세안 NTO들에 대한 지속적인 상호지원을 약속하며 아세안 관광협력을 위한 전략적 행동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립하였다.

- 단일 관광목적지로서의 아세안 지역 마케팅
 - 밀레니엄 아세안 방문의 해 지정
 - 최고수준의 관광마케팅 컨퍼런스
- 관광업 투자 장려
 - 관광투자 안내
 - 관광교류 자유화
- 관광인력 개발
 - 교육·훈련센터의 네트워크화
 - 위성 회계 시스템 도입
 - 관광객 훈련

- 환경친화적 관광 및 생태 관광 홍보
- 아세안 회원국간 관광교류 간소화
- 유람선 관광 : 민간사업체 참여

나. 제 2 차 아세안 국가 관광장관 회의 - 1999년 1월 28일, 싱가포르

1) 하노이 행동계획 : 관광부문 우선사업의 이행계획

아세안 국가 장관들은 ‘2002년 밀레니엄 아세안 방문의 해’를 위한 협의에서 아세안 지역으로의 외래관광객 유치 및 아세안 국가간 관광장려를 결의하였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계획은 다음과 같다.

- ‘2002 밀레니엄 아세안 방문의 해’착수 (필리핀)
- 21세기 아세안 지역의 공동 마케팅을 위한 전략연구 수행(브루나이)
- 2001년 까지 관광정책 및 기획 분야의 새 직능 및 신기술에 중점을 두는 아세안 관광훈련 센터의 네트워크 설립(인도네시아)
- 관광교류와 소비자를 위한 생태관광 프로그램 실시(말레이시아)
- 2000까지 아세안 유람선 관광개발 연구 완료 (싱가포르)

2) 아세안 회원국가간 관광서비스의 자유로운 흐름의 장애가 되는 요소들 제거

- 관광산업 신규투자 사업체에 세금 가면 (호텔건축, 리조트, 골프장, 여행업등)
- 관광관련 산업체에 주주권을 100%까지 확대
- 수입 자본재 면세
- 회원국 시장에의 손쉬운 접근책 마련
- 관광관련 산업에의 해외직접투자를 위한 대지사용기간 확장
- 관광 전문인력의 자유로운 교류
- 신규 투자를 위한 자본재 및 홍보물자에 대한 신속한 세관통과

3) 한·아세안 관광협력사업 실적

우리나라의 관광산업은 1989년 해외여행 전면 자유화 조치와 국가경제의 대외관계확대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97년에는 454만 명이 해외여행을 실시하였고, 외국인 방문은 전년대비 6.1%가 증가한 391만명이 입국하였다. 이와같이 증가일로에 있던 우리나라의 해외관광산업은 1997년 말 몰아닥친 IMF 한파와 함께 급속히 위축되어, 1998년 현재 내국인 해외여행객은 307만 명으로서 전년대비 40.6%가 감소되었다.(1998년 외래 방문객은 425만명) 아세안 국가간의 관광교류는 지리적 인접, 상이한 자연환경, 한·아세안간 경제교류증대 등의 영향으로 그 동안 타 지역에 비하여 높은 성장을 보여왔다. 1996년 한·아세안간 관광객교류를 살펴보면, 약 81만 명의 한국인이 아세안으로 출국하였으며, 42만 명의 아세안인이 한국을 방문하여 전년대비 각각 23.4%, 9.1% 성장하였다. 1998년에는 아시아지역을 강타한 금융위기로 한·아세안간의 관광교류가 하락하였으나 꾸준한 경기회복세로 2,000년 이후에는 이전 수준 이상으로 반등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아세안간의 관광객 교류는 제도적으로 개방되어있고, 각국 NTO의 적극적인 관광홍보 활동, 여행업계의 판촉활동, 한·아세안간 관계확대, 친근감 확산 등으로 향후에도 상호 관광객 교류가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한·아세안 협력사업은 특별협력기금의 지원 아래 각 분야별로 추진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아세안과 대화관계가 구축된 후 1999년 3월 현재까지 50건에 이르는 협력사업을 추진해왔는데, 그 중 관광관련 사업은 7건에 불과하며 1995년 이후부터는 전무한 상태이다. 금액으로는 한·아세안 협력사업에 소요된 총 6,405,395달러 중 1,742,830달러가 관광관련 협력사업에 지출 되었다.

다. 1998년 제 4차 한·아세안 대화 중 관광부문 아세안 측 제안

- 1) 경기침체에 의해 위축된 한·아세안 관광을 다시 진흥시키기 위해서 한국국민들에게 이국적이고 다양한 재미를 제공하는 관광목적지인 아세안 국가들을 재인식시켜줄 것을 당부.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아세안 관광의 장점을 부각시켜 줄 것

- 2) 직원들에게 인센티브 투어를 제공하는 사업체들에 대한 세금감면은 관광산업 재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임
- 3) 2002년 월드컵을 위해 한국과 일본을 방문하는 외래방문객들을 위한 패키지 투어를 아세안 국가를 목적지에 포함시켜 줄 것. 이는 월드컵게임을 관람하려는 외래관광객의 한국방문을 위축시키지 않으면서 아세안 관광을 장려하는 진흥책이 될 것임.

그 동안 한국과 아세안의 관광부문 협력사업을 위해 양측이 제안, 협의된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제안된 사업은 다양하나, 이 중 실제로 시행된 사업의 수는 제한적이다. 제안된 사업내용들은 아세안을 한국시장에 소개하고 한국 여행사들로 하여금 아세안이라는 여행목적지에 친숙하게 하여 한국인 해외여행객들의 아세안에 대한 수요를 자극하게 하며, 보다 편안하고 원활한 아세안 방문이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라. 한·아세안 관광협력 프로젝트 제안 내용(안)

○ 아세안 관광소위원회 협력사업 제안(1990.4)

- 한국어 관광가이드 교육

1단계 : 아세안 각국에서 1주일간 한국어 교육 및 문화소개 프로그램 개설

(1990.1991.1992)

총경비 : \$252,600

2단계 : 아세안 각국 국가관광기구에서 관광가이드 훈련 프로그램 시행

(1991) 한국어, 한국문화 교육

3단계 : 아세안 NTO 에서 한국어 훈련과정 운영

(1991년도 15명 3개월간)

소요경비 : \$232,500

○ 제4차 아세안 상임위원회, 위 협력사업 내용 확정 및 공식 제의(1990.6)

- 제 1차 한 · 아세안 공동위원회(JSCC)개최 (1990.8. 자카르타)
 - 1990년도 협력사업 승인(아세안 관광안내원에 대한 한국어 교육 실시)
한국측에서 아세안 각국에 교관 파견
소요예산 : \$ 84,200
 - 1991년도 상반기 사업승인 (ASEAN Week 행사개최 - 서울)
아세안상품전 개최, 관광증진 발전회의 개최, 투자세미나 개최 등
소요예산 : \$ 650,000

- 2차 년도 한 · 아세안 관광부문 협력사업 추진 계획 제출 (1991.2)
 - 아세안 관광안내원 교육 실시
주관 : 한국관광공사
기간 : 1991.9.2 - 9.20(국가별 5일간)
대상 : 아세안 관광안내원 160명
방법 : 한국 교관 파견
소요예산 : \$ 74.900
 - 아세안 국가 대상 한국관광 설명회 개최
주관 : 아세안 국가 관광기구, 한국관광공사 공동
기간 : 1996.10월중
대상 : 아세안 각국 여행업자, 언론인, 소비자 등
내용 : 한국관광 종합 안내 설명
방법 : 관광공사 지사요원 파견
소요예산 : \$34.500

- 아세안측, 한국여행사를 위한 Familiarization program 사업 제안 (1991.5)
 - 목적 : 한국시장의 아세안 국가 관광자원에 대한 인식 제고
 - 대상 : 한국여행사 2그룹(그룹당 8명)
 - 내용 : 방문국의 관광산업 현황 설명
 - 소요예산 : \$ 79,225

- 제 2차 한 · 아세안 공동위원회 (1991.6) 아세안측 제안내용

- 아세안 관광안내원에 대한 2단계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 Part A : 아세안지역 한국어 관광가이드 교육 프로그램
소요예산 : \$38,000
 - Part B : 아세안지역 한국어 강사요원 양성 프로그램
소요예산 : \$50,000
- 한국여행사에 대한 아세안 친밀화 프로그램
 - 한국시장에 대한 '92아세안 방문의 해' 홍보, 한국어판 홍보물 제작
소요예산 : \$140,000

○ 외무부, 아세안측과의 협의내용 통보 (1991.12)

- 한국여행사에 대한 아세안 친밀화 프로그램 1992.2월 이후 시행토록 추진
- '92아세안 방문의 해' 홍보물 제작 및 배포키로
- 아세안 관광안내원에 대한 2단계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 Part A 사업은 효율성이 적을 것으로 판단되어 생략
 - Part B 사업과 관련 새로운 proposal 제안 요청

○ 교통부, 사업계획 수정안 제출(1992.3)

- 한·아세안 관광요원 한국어 교육 2단계 사업계획(Part B)
 - 교육일정 : 1992년 하반기중
 - 교육장소 : 관광교육원
 - 교육내용 : 한국어교육, 한국의 사회문화, 한국 관광객 이해, 현장실무
 - 소요예산 : \$127,400

○ 1992년도 이후 한·아세안 협력사업 계획 수립(1992.5)

- 관광분야 전문인력 교환연수
 - 연수기관 : 교통개발연구원, 아세안 각국 관광관련 연구소 등
 - 연수인원 : 한, 아세안 각 2인
 - 연수기간 : 6개월
 - 소요예산 : \$110,720
- 한·아세안 관광협력 협의체 구성, 운영

구성 : 관광관련 업체 · 단체 · 정부 대표자 30명 (한10명, 아세안20명)

사업내용 : 관광객 교류 증진방안, 관광관련 투자사업 등 논의

소요 예산 : \$89,810

- 공동 학술 세미나 개최

주최 ; 교통개발연구원

참여대상 : 각국 학자 및 연구원

개최방법 : 한국 및 아세안 국가에서 매년 교환 개최

○ 아세안 서울위원회 ‘아세안 관광전시회’사업 제안 (1992.8)

- 아세안 국가들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 제고 및 패키지 관광 촉진을 통한 한국인 관광객의 아세안 방문 확대

주관 : 한국정부가 지정하는 기관

참가자 : 아세안 회원국 정부대표 각1명, 국가관광기구 대표 각1명,
상품설명자 각2인 , 국가 운송업체, 한국 여행업체

소요예산 : \$221,404

○ 교통부, 관광분야 전문인력 교환연수사업 수정 제안(1993.2)

인원 : 한국측 3인(2개국씩 연수), 아세안측 6인

기간 : 각2개월

연수내용 : 연구사업 참여, 관광 관련 주요기관 방문 · 견학, 주요관광지
현지답사, 보고서 작성

소요 경비 : \$180,000

제 4 장 관광협력사업 발굴 및 추진 방향

1. 한중일 아세안 관광협력사업 발굴의 필요성

세계관광기구(WTO)의 보고에 의하면 동아시아·태평양 지역은 1985년 세계관광시장 점유율이 9.5 % 에서 1999년 14.3 %로 급성장 하였으며, 관광객수 현황에서도 동아시아·태평양 지역을 방문한 관광객은 1985년 3천백만 명에서 1999년 9천 4백만 명으로 연 평균 8.2 %의 괄목할 성장을 하여 주목받는 세계 관광 목적지로 부각하고 있고, 이들 중 6천6백5십만 명의 관광객이 동아시아·태평양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로써, 역내 관광객이 전체 동아시아·태평양지역 관광시장의 72.6%를 점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같이 세계관광 목적지로써 차지하는 동아시아·태평양 의 비중이 점차 증대되고, 역내관광의 상호의존성도 급속히 높아감에 따라 역내국가들간 협력강화의 필요성이 중요 시 되고 있고,

2. 제안되는 한중일 아세안 관광협력 사업

우리나라와 동아시아 지역은 동양문화권의 유사성과 지리적 근접성, 상호 상이한 자연·문화환경 등으로 상호 교류가 계속 증가되어 왔으며, 최근 경제협력관계의 증가로 한·아세안 국가간 인적교류는 앞으로도 활발히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까지의 한·아세안 관광협력사업은 아세안의 일방적인 관광진흥을 위한 내용이 짙으므로 앞으로는 한·아세안의 공동 이익을 증진시키고 상호 협력성이 큰 분야에의 관광협력사업 추진이 요구된다.

이에 제안되는 한중일 아세안 관광협력 사업은

- 첫째, 기업간 제휴 및 협력 사업
- 둘째, 정보교류 및 조사연구 사업
- 셋째, 교육연수 사업
- 넷째, 기업인간 교류 촉진 사업

제 5 장 관광부문 민간협의회 운영계획안

1. 민간 협의회 필요성

한중일 아세안간의 관광협력은 상호간의 필요성 인식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국가차원에서 포괄적인 협력관계의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서 관광산업 진흥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우수한 잠재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성과를 올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정부 중심의 협력에서 장애물이 될 수 있는 경제성과 실천성 문제에 민간분야를 참여시켜 투자와 교류를 유도하여 중앙정부 수준의 관광협력이 지니는 한계를 민간 중심의 관광 협력으로 이끌어 동아시아가 21세기의 세계중심으로써 효과적으로 세계화에 대응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역내 관광교류 및 역내로의 관광 촉진을 위하여 민간관광협의회를 설립하여 회원국의 관광기업간 교류 및 협력 촉진을 통한 역내 관광 산업 발전에 기여하며 관광기업의 경쟁력 향상 및 지속적 발전을 도모한다. 또한 민간관광협력회의를 통하여 역내 관광환경 개선을 통한 관광의 질 향상과 상호 관광자원의 개발 및 보호, 관광산업의 연구·개발, 관광요원의 양성과 훈련을 통해 관광을 촉진시키며 관광사업발전을 위해 필요한 부대시설 구축을 촉진함은 관광협력 및 활성화의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민간 협의회 기능과 과제

가. 기업간 제휴 및 협력 사업

- 역내 관광기업간 투자 촉진
 - 국가간 상호인센티브 부여 (관세, 조세, 행정지원 등)
 - 역내·외 관광투자유치설명회 개최
 - 기업간 M & A 촉진

- 역외시장 대상 공동 마케팅 및 홍보
 - 역외 관광시장 대상 공동 패키지관광상품 개발 및 판촉활동
 - 동아시아 크루즈 상품 개발
 - 역내 기업의 역외 홍보 지원
 - 홍보 저널 및 관광투자 안내 책자 발간
 - 전시 박람회 개최
- 역내 관광 교류 촉진
 - 관광교역전 및 홍보 판촉물 제작
 - 무비자제도 확대, 관광객 신변안전 강화, 출입국절차 간소화 등의 관광객 편의를 위한 제도 개선
 - 국제회의 및 인센티브 프로그램 공동 개발
 - 저렴한 여행카드 발행 (가칭 Asia Travel Pass) : 철도, 지하철, 페리 등 대중교통 이용카드
 - 관광산업의 표준화 작업으로 여행객의 편의 증진

나. 정보교류 및 조사연구 사업

- 홈페이지 구축, 운영
- 회원 DB 구축
- 회원대상 정보 및 뉴스 제공
- 공동 조사연구사업 촉진

다. 교육연수 사업

- 관광종사원 상호교환프로그램 운영
- 관광교육기관의 강사 양성 프로그램
- 관광종사원 외국어교육
- 관광종사원 서비스 업무의 향상
- 출판물 발간

라. 기업인간 교류 촉진 사업

- 연차총회 및 포럼 개최
- 관광교역전, 전시박람회 개최
- 관광기업체 명부 발간, 배포
- 전문인력 취업정보 소개

3. 민간 관광협의회 구성 원칙

- 한중일+아세안 지역의 관광교류 활성화 정책 수립 및 조정
- 관광 효과의 증진
- 관광자원 및 시설을 개발 확충
- 교육훈련사업의 지원과 자문을 위하여 공동 노력

4. 한중일 아세안 민간협의회 구성 운영(안)

가. 기구명칭(안) : 『아시아 민간관광협의회』 , Asia Tourism Business Council (ATBC)

나. 설립목적

- 역내 관광교류 촉진을 통한 관광 효과 증진
- 회원국 관광기업간 교류 및 협력 촉진을 통한 역내 관광산업발전 기여
- 관광기업의 경쟁력 향상 및 지속적 발전 지원
- 역내 고유한 자연, 사회 및 문화적 환경의 보존

다. 조직구성 및 임무

- 이사회
 - 구성 : 국가별 2명, 총 26명(국가별 관광부문 주관기관의 대표 1명, 업계 대표 1명)

- 임무 : 최고 의사결정기구(주요 사업계획 심의/의결)
- 시기 : 연1회 (필요시 임시회 개최)
- 회장 : 임기 2년으로 호선

○ 사무국

- 구성 : 관광부문 *facilitating country*에서 사무국 구성, 운영
- 임무 : 기구운영 계획 수립, 집행, 회의소집, 회원정보 배포
- 시기 : 연중 상설

○ 지 부(국가별 민간관광협력협의회)

- 구성 : 관광관련 기업, 국가별 주관기관에서 지부역할 담당
- 임무 : 자국내 협의회 구성/운영, 본부 사무국과의 교류, 협력사업 제안/운영

○ 회원 : 관광관련기업

- 정회원 : 관광관련기업(공항, 항공사, 크루즈, 호텔, 여행사, 리조트, 관광지개발 회사, 관광경영컨설팅사, 관광교육훈련기관, 관광식당, 카지노, 관광언론, 연구 기관 등), 정부관광기구
- 준회원 : NTA, 지자체 관광국
- 옵저버 : 타 산업부문 기업

라. 재원

○ 재원조달 : 회원국 정부의 출연금 + 회비

- 초기 운영자금은 회원국 정부의 출연금으로 조달
- 점진적으로 회비 징수를 통해 운영자금으로 활용

5. 국내 민간 협의회 구성 운영(안)

가. 기구명칭(안) : 『민간관광협의회 한국지부, ATBC Korea Chapter』

나. 설립목적

- ATBC(안) 회원간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고 유대를 강화하여 국내관광업계의 발전을 도모하며,
- ATBC(안) 의 각종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역내관광투자 및 제휴촉진으로 한국관광의 진흥에 기여 하며,
- ATBC(안)에서 결정한 사업의 시행에 있어 필요한 조치를 정부에 건의하고 한국관광업계의 협조를 강구하여 외래객 유치 및 국내 관광산업의 경쟁력 제고

다. 조직 구성 및 임무

○ 이사회

- 구성 : 회장1인 및 부회장 5인을 포함한 부회장, 감사, 이사, 고문 등 총 20여명의 업계대표로 구성
- 임무 : 기구운영 총괄, 사업계획 심의 · 의결, 활동실적 보고
- 시기 : 연 1회(필요시 임시회 개최)

○ 사무국

- 구성 : 한국관광공사에서 사무국 운영 (PATA Korea Chapter와 연계 운영)
- 임무
 - 기구운영 계획 수립, 집행, 각종회의 개최
 - 본부 및 타 지부와의 협력, 조정, 연락업무
 - 지부 이사회, 정기 총회 개최
 - 회원정보 및 각종 뉴스 배포
 - 전시박람회, 관광교역전 참가 등 각종 이벤트를 활용한 홍보, 판촉활동 전개
- 시기 : 연중 운영

○ 회원 : 가입을 희망하는 관광관련 기업

- 정회원 : 관광관련기업(공항, 항공사, 크루즈, 호텔, 여행사, 리조트, 관광지개발회사, 관광경영컨설팅사, 관광교육훈련기관, 관광식당, 카지노, 관광언론, 연구 기관 등) 정부관광기구
- 준회원 : 문화관광부, 지자체 관광국
- 옵저버 : 타 산업부문 기업

라. 운영자금 조달

○ 기금구성 : 정부 출연금 + 회비

- 초기 운영자금은 정부의 출연금으로 조달
- 점진적으로 회비 징수를 통해 운영자금으로 활용

6. 향후 협력 일정

○ 9월 : 기구 구성계획 수립

○ 10월 : 기구 구성 제의 및 수정 및 확정

○ 11월 : 총회 개최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1. 요약 및 결론